

## 《碧鷄漫志》譯註(6)

이 태 형\*

〈目次〉

I. 《碧鷄漫志》 제4권 역주  
(4.51조~4.52조)

II. 《碧鷄漫志》 제5권 역주  
(5.53조~5.65조)

### I. 《碧鷄漫志》 제4권 역주(4.51조~4.52조)

[4.51원] 荔枝香

《荔枝香》，唐史《禮樂志》云：「帝幸驪山，楊貴妃生日，命小部張樂長生殿，奏新曲，未有名，會南方進荔枝，因名曰《荔枝香》。」《脞說》云：「太真妃好食荔枝，每歲忠州置急遞上進，五日至都。天寶四年夏，荔枝滋甚，比開籠時，香滿一室。供奉李龜年撰此曲進之，宣賜甚厚。」《楊妃外傳》云：「明皇在驪山，命小部音聲于長生殿奏新曲，未有名，會南海進荔枝，因名《荔枝香》。」三說雖小異，要是明皇時曲。然史及《楊妃外傳》皆謂帝在驪山，故杜牧之華清絕句云：「長安回望繡成堆。山頂千門次第開。一騎紅塵妃子笑，無人知道荔枝來。」《遜齋閑覽》非之，曰：「明皇每歲十月幸驪山，至春乃還，未嘗用六月。詞意雖美，而失事實。」予觀小杜華清長篇，又有「塵埃羯鼓索，片段荔枝筐」之語。其後歐陽永叔詞亦云：「一從魂散馬嵬間。只有紅塵無驛使，滿眼驪山。」唐史既出永叔，宜此詞亦爾也。今歇指、大石兩調皆有近拍，不知何者為本曲。

\* 한국고전번역원 직인

[4.51역] 여지향

〈여지향(荔枝香)〉<sup>1)</sup>은 《당사(唐史)》 〈예악지(禮樂志)〉<sup>2)</sup>에서 언급하였다. “황제가 여산(驪山)<sup>3)</sup>에 행행(行幸)하니 양귀비의 생일이라서 소부(小部)<sup>4)</sup>에 명하여 〈장생전(長生殿)〉<sup>5)</sup>을 연주하도록 하니 새로운 곡에 반주하였으나 아직 이름이 없었는데 마침 남방에서 여지를 진상하였기에 이로써 〈여지향〉이라 이름 붙였다.” 《좌설(胙說)》<sup>6)</sup>에서 언급하였다. “양귀비<sup>7)</sup>가 여지를 즐겨 먹었는데 매년 충주(忠州)<sup>8)</sup>에 모아두었다가 역마로 급하게

- 1) 여지향(荔枝香) : 여지는 나무의 높이는 5~6장(丈)쯤 되고 푸른 잎에 꽃은 푸르며 열매는 붉은데, 열매는 익으면 달고 수즙이 많다. 《당서(唐書)》에 의하면, 양귀비가 여지를 좋아하므로 교지에서는 해마다 여지를 바치게 되었는데 날씨가 더워서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므로 그것이 썩기 전에 바치느라 교지 지방은 폐해가 막심했다 한다.
- 2) 예악지(禮樂志) : 당사(唐史)라는 서명은 없지만, 당나라의 역사서라는 범주 안에 《당서(唐書)》와 《신당서(新唐書)》가 있고, 예악지(禮樂志)는 《신당서》에 포함되었다.
- 3) 여산(驪山) : 역산(鬲山)이라고도 쓴다. 섬서성 임동현(臨潼縣) 동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서 진시황의 능묘가 있으며, 당 태종 때 여산의 기슭에 지은 온천궁을 말하는데, 현종 때에 이르러 이를 다시 넓혀 짓고 화청궁(華清宮)으로 개명하여 현종이 가끔 행행하였고, 양귀비도 여기에 와서 목욕을 하곤 했었다.
- 4) 소부(小部) : 당나라 때 황궁의 이원(梨園)에서 악곡의 연주를 훈련하는 곳인데, 후세에 교방(敎坊)이나 법곡(法曲)의 대용으로 일컬었다. 《신당서》〈예악지〉에 “이원 법부에 다시 소부음성(小部音聲) 33명을 두었다.”라고 하였다.
- 5) 장생전(長生殿) : 당나라 때 화청궁안의 궁전 이름으로 신을 모시었고, 청나라 때 홍승의 희극 이름이기도 하다. 당현종과 양귀비와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 도화선의 별칭이다.
- 6) 좌설(胙說) : 중국어 사건의 한 종류로 자갈하면서 비속적인 단어나 의론을 해석한 것이다. 역대 여러 학자들이 남겼는데 지금은 송(宋)나라 장군방(張君房)의 저술이 전해진다.
- 7) 양귀비 : 원문 “태진비(太真妃)”는 양귀비를 가리킨다. 17세 때 현종의 아들인 수왕(壽王) 이모(李瑁)의 비가 되었는데, 그때의 이름은 옥환(玉環)이고, 현종이 양귀비의 미색에 혹해서 여도사로 삼은 다음에는 태진이란 이름을 하사하였으며, 이후 27세 때 귀비로 책봉하였다.
- 8) 충주(忠州) : 현재 중국 충칭시(重慶市) 중부에 위치한 충현(忠縣)의 고향이다. 전통적으로 파(巴) 지역으로 정관 8년(634)에 충주로 불렸다가 천보(天寶) 원년(742)에 남빈군(南賓郡)으로 바뀌었다. 운남지역에서 당시 도읍인 장안으로

운반하여 진상하게 하였는데 닷새 만에 도성에 도착하였다. 천보 4년<sup>9)</sup> 여름에 여지가 매우 농익어서 바구니를 열 때에 비하여 온 방안에 향이 가득하였다. 공봉(供奉) 이귀년(李龜年)<sup>10)</sup>이 이곡을 지어서 바치니 황제가 매우 후하게 하사하였다.” 《양비외전(楊妃外傳)》에서 언급하였다. “명황제(明皇帝)<sup>11)</sup>가 여산에 있으면서 소부음성(小部音聲)에 명하여 <장생전> 새로운 곡조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미처 곡명이 없었는데 마침 남해(南海)에서 여지를 진상하니 이로 인하여 <여지향>이라 이름하였다.” 세 가지 가설이 비록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명황제 시기의 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서와 《양비외전》 모두 황제가 여산에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두목(杜牧)의 <화청절구(華清絕句)><sup>12)</sup>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장안을 돌아보니 비단 무더기 이룬 듯	長安回望繡成堆
산 정상에 이르는 문들이 차례로 열렸지	山頂千門次第開
말이 일으킨 흙먼지에 양귀비 웃어대니	一騎紅塵妃子笑
여지가 도착한지 아는 이는 하나 없다오	無人知道荔枝來

《둔재한람(遜齋閑覽)》<sup>13)</sup>에서 반박하면서, “명황제는 매년 10월에 여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 9) 천보(天寶) 4년 : 당(唐)나라 현종(玄宗)의 후기(後期) 시대. 곧 742~756년간으로 천보 4년은 746년이다.
- 10) 공봉(供奉) 이귀년(李龜年) : 공봉은 당 현종 때의 관직인 한림 공봉(翰林供奉)을 말하는데, 응제(應製)를 담당하는 직임이다. 이귀년은 당 현종 때의 음악가로 음률(音律)에 능통하였다.
- 11) 명황제(明皇帝) : 당 현종(唐玄宗)을 가리킨다. 그의 시호가 지도대성대명효황제(至道大聖大明孝皇帝)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 12) 두목(杜牧)의 화청절구(華清絕句) : 두목의 <과화청궁(過華清宮)>에 “말발굽에 이는 티끌 귀비가 좋아하는데, 여지가 올라온 줄 아는 이 없네.(一騎紅塵妃子笑, 無人知是荔枝來)”라고 하였다. 양 귀비가 여지를 매우 좋아했으므로, 당 현종이 수천 리 밖에 있는 이것을 역마로 풍진을 날리면서 실어다가 먹었다고 한다.
- 13) 둔재한람(遜齋閑覽) : 송(宋)나라 범정민(范正敏)의 수필집이다.

산에 행행하여 봄이 되어서야 환궁하니 일찍이 6월에 간 적은 없다. 가사의 의미가 비록 아름다우나 사실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였다.

내가 두목<sup>14)</sup>의 <화청장편(華淸長篇)>을 보니 또 “흙먼지 속에 갈고(羯鼓)<sup>15)</sup>를 치니, 여지 광주리 조각조각 부서지네.(塵埃羯鼓索, 片段荔枝筐)”라는 시어가 있다. 그 뒤에 구양수의 사(詞)에서 또, “한번 마외(馬嵬)<sup>16)</sup>에서 흩어진 혼 따라가니, 붉은 먼지만 있을 뿐 역리(驛吏)도 없어, 시아에는 여산만 가득하네.(—從魂散馬嵬間, 只有紅塵無驛使, 滿眼驪山)”라고 하였다. <당사>에 이미 구양수가 나왔으니 응당 이 가사 또한 이리하다. 오늘날 헐지조(歇指調)과 대석조(大石調) 두 사조에 모두 근박(近拍)이 있지만, 어떤 것이 본래 곡조인지는 알 수 없다.

#### [4.52[원]] 阿濫堆

<阿濫堆>, <中朝故事>云:「驪山多飛禽, 名阿濫堆。明皇御玉笛, 採其聲, 翻為曲子名。左右皆傳唱之, 播于遠近, 人競以笛效吹。故張祜詩云:『紅樹蕭蕭閣半開, 玉皇曾幸此宮來。至今風俗驪山下, 村笛猶吹阿濫堆。』」賀方回<朝天子>曲云:「待月上, 潮平波灩灩, 塞管孤吹新阿濫。」即謂<阿濫堆>。江湖間尚有此聲, 予未之聞也。嘗以問老樂工, 云屬夾鍾商。按<理道要訣>天寶諸樂名, 堆作埴, 屬黃鍾羽。夾鍾商俗呼雙調, 而黃鍾羽則俗呼般涉調。然<理道要訣>稱:黃鍾羽時號黃鍾商調;皆不可曉也。

14) 두목: 원문 “소두(小杜)”는 대두(大杜) 두보(杜甫)에 건주어 후대에 태어난 두목(杜牧)을 가리킨다.

15) 갈고(羯鼓): 아악(雅樂)의 타악기의 하나. 장구와 비슷하되 양쪽 마구리를 다 말가죽으로 메어 대(臺) 위에 올려놓고, 좌우 두 개의 채로 치는 데, 합주(合奏) 때에 빠르기를 조절(調節)한다.

16) 마외(馬嵬): 지금의 중국 섬서성 흥평현(興平縣)의 경내에 있던 역명. 당 현종이 안록산의 반란으로 수도 장안을 버리고 촉(蜀)으로 몽진(蒙塵) 길에 올라 마외역에 당도하였을 때, 수행하던 군신들의 강요로 양귀비를 내주어 죽게 한 고사가 있다.

[4.52역] 아람퇴

〈아람퇴(阿濫堆)〉<sup>17)</sup>는 《중조고사(中朝故事)》<sup>18)</sup>에서 언급하였다. “여산(驪山)에는 ‘아람퇴’라는 이름의 날짐승이 많다. 명황제가 옥피리를 불면서 그 새 소리를 채록<sup>19)</sup>하였다가 악보로 번안(翻案)하여 곡자(曲子)의 이름으로 삼았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전하여 불렀고 여기저기 퍼져서 사람들이 다투어 피리로 흥내 내어 불어대었다. 그러므로 장호(張祐)가 시를 지었다.

단풍나무 쓸쓸하고 누각은 반쯤 열리니  
황제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행차했다오  
지금까지 여산 아래에 전해지는 풍속은  
마을 속 피리는 여전히 아람퇴를 분다오

紅樹蕭蕭閣半開  
玉皇曾幸此宮來  
至今風俗驪山下  
村笛猶吹阿濫堆

하주(賀鑄)의 〈조천자(朝天子)〉<sup>20)</sup>곡에 “달 뜨자 조수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일렁이니<sup>21)</sup> 변방의 피리 잡고 홀로 새로운 아람퇴를 불어보네.(待月

- 17) 아람퇴(阿濫堆) : 곡명으로 아타회(阿鞞廻)라고 하며, 소식의 이충시(二虫詩)에는 안람퇴(鵝濫堆)로 되어 있다.《이아(爾雅)》에, ‘고(鶩)는 당도(鸕鶿)다.’ 하였는데, 그 주에, ‘까마귀와 같이 생겼는데, 창백색이다.’ 라고 하였고, 자서(字書)에는, ‘여산조(驪山鳥)’ 라고 하였다.
- 18) 중조고사(中朝故事) : 오대시대 남당(南唐)사람 위지악(尉遲偓)이 지은 2권 분량의 역사서이다. 위지악의 사적은 자세하지 않다. 당시 사관으로 있다가 성지를 받들어 편찬하였다. 중조(中朝)는 남당에 대한 장안에 도움이 당나라 본조를 말한다. 선종, 의종, 소종, 애종 4대 조정의 고사를 기록하였다. 상권은 군신간의 사적과 조정 제도를, 하권에서는 신기하고 환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 19) 채록 : 현종이 피리를 부는데 당시 아람퇴라는 새가 지저귀고 있어서 새 소리를 피리의 음물에 맞춰서 부르다보니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번안이란 원곡을 그대로 두고 현지인의 풍속이나 격조에 따라 맞춰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20) 조천자(朝天子) : 당나라 교방(敎坊)의 곡명으로 후대에는 사패의 이름으로 쓰였다. 이칭으로 사월인(思越人), 조천(朝天) 등이 있다. 쌍조(雙調)로 46자이고 앞뒤 단락 각각 4구로 4측운이다. 조보지(晁補之)의 《조천자·주성정부악(酒醒情懷惡)》을 정격으로 삼는다. 대표작으로는 양무구(楊無咎)의 《조천자·소각관여장(小閣寬如掌)》이 있다.

上, 潮平波灩灩, 塞管孤吹新阿濫”라고 하였는데 바로 <아람퇴>를 말하는 것이다. 강호 사이에는 아직도 이 소리가 남아있지만 나는 여태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일찍이 노련한 악공에게 물어보니 협종상(夾鍾商)<sup>22)</sup>에 속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도요결(理道要訣)》<sup>23)</sup>을 살펴보면 천보(天寶) 연간<sup>24)</sup>의 여러 악곡 이름에 ‘퇴(堆)’자를 ‘퇴(塼)’라고 쓴 것은 황종우(黃鍾羽)<sup>25)</sup>에 속했다. 협종상은 세속에서 쌍조(雙調)라고 부르며, 황종우를 세속에서 반섭조(般涉調)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도요결》에서는 “황종우는 때때로 황종상조(黃鍾商調)로 불린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해할 수 없다.

## II. 《碧鷄漫志》 제5권 역주(5.53조~5.65조)

### [5.53원] 念奴嬌

《念奴嬌》, 元微之《連昌宮詞》云:「初過寒食一百六, 店舍無煙宮樹綠. 夜半月高弦索鳴, 賀老琵琶定場屋. 力士傳呼覓念奴, 念奴潛伴諸郎

- 21) 조수가 ..... 일렁이니 : 조수는 바다의 썰물과 밀물이다. 밀물이 가득 차면 수면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지만 바닷물이 해안에 가득 고여서 일렁이듯이 보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다.
- 22) 협종상(夾鍾商) : 12율려(律呂)는 양성인 6률과 음성인 6려가 있다. 6률은 황종(黃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척(夷則)·무역(無射)이요, 6려는 대려(大呂)·협종·중려(仲呂)·임종(林鐘)·남려(南呂)·응종(應鐘)이다. 궁조(宮調)는 정궁(正宮)·고궁(高宮)·중려궁·도조궁(道調宮)·남려궁(南呂宮)·선려궁(仙呂宮)·황종궁이고, 상조(商調)는 월조(越調)·대석조·고대석조·쌍조(雙調)·소석조·혈지조(歇指調)·임종상이다.
- 23) 이도요결(理道要訣) : 두우의 《통전(通典)》 200권은 고대 제일의 정전류 저작으로 최고의 문헌가치를 갖추었다. 《도리요결》 10권은 방대한 《통전》에서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발췌한 것으로 문헌의 정수만 모았지만 《통전》에 비해 문헌가치가 떨어져 명나라 이후에 실전(失傳)하였다.
- 24) 천보(天寶) 연간 : 당나라 현종(玄宗) 대에 사용한 연호(742년~756년)이다.
- 25) 황종우(黃鍾羽) : 우조(羽調)는 중려조(中呂調)·정평조(正平調)·고평조(高平調)·선려조(仙呂調)·반섭조(般涉調)·고반섭조·황종우이다.



점방엔 연기 사라져서 궁궐 나무 푸르네	店舍無煙宮樹綠
한밤중 달빛 높으네 거문고 소리 울리니	夜半月高弦索鳴
하로 <sup>29)</sup> 의 비파소리가 무대 <sup>30)</sup> 를 진정시키네	賀老琵琶定場屋
고력사 <sup>31)</sup> 가 염노를 찾아오라고 전달하나	力士傳呼覓念奴
염노는 사내들과 몰래 짝지어 잠들었네	念奴潛伴諸郎宿
잠간사이 찾았다가 또 연달아 재촉하니	須臾覓得又連催
특별히 조칙 내려 거리를 환하게 비추네	特敕街中許然燭
눈 가득한 아리따운 자태로 흥초서 자다가 <sup>32)</sup>	春嬌滿眼睡紅綃
흰머리 단정히 빗질하고 곧바로 단장 <sup>33)</sup> 하네	掠削雲鬢裝束
구천을 날아올라서는 노래 한 가락 부르니	飛上九天歌一聲
스물다섯째 <sup>34)</sup> 가 피리를 불며 뒤 따르다오 <sup>35)</sup>	二十五郎吹管逐

사주(自註)에, “염노(念奴)는 천보(天寶)<sup>36)</sup> 연간에 활동한 이름난 창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청명과 한식은 가끔 서로 뒤바뀌기도 한다. 106이라는 숫자 자체가 한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 29) 하로(賀老) : 악공인 하회지(賀懷知)는 당나라 때 비파를 잘 타기로 유명하였다.
- 30) 무대 : 장옥은 본래 광장 가운데 막으로 둘러친 과거시험장을 뜻하는데, 광대나 악공들의 놀이 무대도 이와 비슷하므로 장옥이라 칭한 것이다.
- 31) 고력사(高力士) : 생졸년은 684~762이다. 당(唐) 현종(玄宗) 때의 환관으로 내시성(內侍省)의 직임을 맡아 신중히 사무를 처리한 공로가 인정되어 발해군공(渤海郡公)에 봉해졌다. 현종의 총애를 받아 숙종(肅宗)은 태자로 있을 때에 그를 형으로 섬겼다. 안사(安史)의 난 때에는 현종을 따라 촉(蜀) 땅에 갔으며, 숙종 상원(上元) 1년(760)에 무주(巫州)에 유배되었고, 2년 뒤에 사면되어 돌아가던 중 병사하였다
- 32) 흥초서 자다가 : 홍초(紅綃)는 홍색 생사 비단을 말한다. 특히 초(綃)는 생사(生絲)로 짠 얇은 비단의 총칭으로 조선 시대 문무백관들의 조복(朝服)·제복(祭服)의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붉은 비단 이불을 말한다. 원문은 ‘淚紅綃’인데, 《고문진보》 등에 의거하여 ‘睡紅綃’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33) 단장 : 원문 “裝束”인데, 《고문진보》 등에 의거하여 ‘粧束’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34) 스물다섯째 : 25번째 황자라는 뜻으로 빈왕(郾王) 이승녕(李承寧)을 가리킨다. 현종의 아우인데 피리의 명수였다.
- 35) 뒤 따르다오 : 원문 “逐”인데, 《고문진보》 등에 ‘籟’이라는 주석이 되어있다. 피리 적(笛)의 이체자로 원문을 그대로 따라서 번역하였다.
- 36) 천보(天寶) : 당 현종 말기의 연호로, 742년에서 756년까지이다.

(娼妓)로 노래를 잘 불렀다. 매년 누각 아래서 잔치를 열면 많은 무리가 시끄럽게 지껄이니 엄안지(嚴安之)<sup>37)</sup>와 위황상(韋黃裳)<sup>38)</sup> 무리가 물러서면서 멈추지 못하였지만, 많은 악공들이 연주를 그만두었다. 명황제가 고령사를 보내어 누대 위에서 크게 소리치며 ‘염노를 남겨두어 노래를 부르고자 한다. 스물다섯째 빈왕(邢王)은 작은 피리를 불며 쫓으리니 관중들이 노래가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모두가 두려워하며 조칙을 받들었다. 그러나 명황제는 무르익은 작은 유희<sup>39)</sup>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 일찍이 궁궐<sup>40)</sup> 안에만 놔둔 적이 없었다. 해마다 온천에 행행하여 때로는 동쪽 낙양(洛陽)<sup>41)</sup>을 순행하면서 유사(有司)<sup>42)</sup>를 남몰래 보내어 호종(扈從)하게 하였을 따름이었다.”라고 하였다.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sup>43)</sup>에서 “염노는 미모가 아름답고 노래를 잘해 궁중의 기녀(妓女) 중에 으뜸이었다. 황제가 일찍이, ‘이 여인은 눈빛이 아름다운 미인이구나.’라고 하였고 또, ‘염노는 매번 박판(拍板)<sup>44)</sup>을 가

- 37) 엄안지(嚴安之) : 당나라 현종 개원 연간에 엄안지는 하남승(河南丞)으로 있었는데 성격이 포박하였다. 마음이 사납고 손이 매워서 죄인을 구타하고 고문을 서슴치 않아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開元傳信記》
- 38) 위황상(韋黃裳) : 당나라 위황상은 일찍이 만년현위(萬年縣尉)가 되었다가 전중시어사(殿中侍禦史)에 올랐다. 사람 됨됨이가 모함을 잘하고 권력에 아첨하였다. 이백이 위황상에게 쓴 시 〈贈韋侍禦黃裳二首〉가 남아있다. 《舊唐書》
- 39) 작은 유희 : 원문 ‘狹游’는 좁은 곳에서 조출하게 즐기는 유희로 소규모 인원으로 국한하여 술 마시고 시 짓는 연회를 말한다.
- 40) 궁궐 : 원문 “宮禁”은 대궐을 말한다. 황실 이외에 출입을 금하는 내명부에 국한하기에 금(禁)이라 표현하였다.
- 41) 동쪽 낙양(洛陽) : 당나라의 수도는 지금의 시안(西安)으로 옛날에는 장안(長安)이라 부르며 함곡관 서쪽에 있어서 서경(西京)이라 하였고, 낙수(洛水) 위에 있는 낙양은 함곡관 동쪽에 위치해 동경(東京)이라 불렀다.
- 42) 유사(有司) : 담당자란 뜻으로 온천으로 순시할 때 함께 동행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악공을 의미한다.
- 43)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 당나라 왕인유(王仁裕)가 지은 필기소설이다. 주로 당나라 개원과 천보 연간 잊혀진 사건을 기술하였는데 내용은 신기한 물품이나 전설과 사적을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중에 궁중에서 칠석날과 한식에 풍습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44) 박판(拍板) : 악기의 하나. 2매 내지 10여 매의 매끄러운 목판(木板)의 한 끝을

지고 자리에 앉으면 소리가 아침노을<sup>45)</sup> 위로 흘러나온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대석조(大石調)인 〈염노교〉는 세상에는 천보 연간에 지어진 곡이라 알려져 있으나 나는 진정 의심스럽다. 그러나 당나라 중엽에는 점차 오늘날 문체처럼 길게 늘어진 곡자가 생겨났고, 근세에는 〈연창궁사〉를 이 곡에 채워 넣은 것이 있으니 뒤에 다시 이 곡을 바꾸어 도조궁(道調宮)에 넣었거나 또는 고궁(高宮) 대석조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 [5.54원] 雨淋鈴

《雨淋鈴》，《明皇雜錄》及《楊妃外傳》云：「帝幸蜀，初入斜谷，霖雨彌旬。棧道中間鈴聲，帝方悼念貴妃，採其聲為《雨淋鈴》曲以寄恨。時梨園弟子惟張野狐一人，善箏箏，因吹之，遂傳于世。」予考史及諸家說，明皇自陳倉入散關，出河池，初不由斜谷路。今劍州梓桐縣地名上亭，有古今詩刻記明皇聞鈴之地，庶幾是也。羅隱詩云：「細雨霏微宿上亭，雨中因感雨淋鈴。貴為天子猶魂斷，窮著荷衣好涕零。劍水多端何處去，巴猿無賴不堪聽。少年辛苦今飄蕩，空媿先生教聚螢。」世傳明皇宿上亭，雨中聞牛鐸聲，悵然而起，問黃幡綽：「鈴作何語？」曰：「謂陛下特郎當。」特郎當，俗稱不整治也。明皇一笑，遂作此曲。《楊妃外傳》又載上皇還京後，復幸華清，從宮嬪御多非舊人。於望京樓下，命張野狐奏《雨淋鈴》曲。上四顧淒然，自是聖懷耿耿，但吟「刻木牽絲作老翁，雞皮鶴髮與真同。須臾弄罷寂無事，還似人生一世中」。杜牧之詩云：「零葉翻紅萬樹霜，玉連開蕊暖泉香。行雲不下朝元閣，一曲淋鈴淚數行。」張祜詩云：「雨淋鈴夜卻歸秦，猶是張徽一曲新。長說上皇和淚教，月明南內更無人。」張徽即張野狐也。或謂祜詩言上皇出蜀時曲，與《明皇雜錄》、《楊妃外傳》不同。祜意明皇入蜀時作此曲，至雨淋鈴夜卻又歸秦，猶是張野狐向來新曲，非異說也。元微之《琵琶歌》云：「淚垂捍撥朱弦濕，冰泉嗚咽流鶯澀。因茲彈作雨淋鈴，風雨蕭條鬼神

끈으로 꿰어 손에 잡고서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45) 아침노을 : 아침에 태양이 처음 떠오르려 할 때 나타나는 적황(赤黃)의 기운이라는 말이 《한서(漢書) 사마상여전(司馬相如傳) 하(下)의 주(註)에 나온다.

泣。」今雙調《雨淋鈴慢》，頗極哀怨，真本曲遺聲。

[5.54역] 우림령

〈우림령(雨淋鈴)〉<sup>46)</sup>은 《명황잡록(明皇雜錄)》<sup>47)</sup>과 《양비외전(楊妃外傳)》에서 언급하였다. “황제가 서촉(西蜀)<sup>48)</sup>에 몽진(蒙塵)하여 처음 사곡(斜谷)<sup>49)</sup>에 들어갔을 때 장마가 열흘 동안 내렸다. 잔도(棧道)<sup>50)</sup>로 가는 중에 방울 소리<sup>51)</sup>를 듣고는 황제가 죽은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그 소리를 채록하여 〈우림령〉곡을 만들어 정한을 부쳤다. 당시 이원(梨園)<sup>52)</sup>의 제자

- 46) 우림령(雨淋鈴) : 《명황잡록》에 “임금이 서촉(西蜀)에 행행(行幸)하여 맨 처음 사곡(斜谷)에 들어섰을 때 장마가 열흘 동안 계속되었는데 잔도(棧道) 안에서 빗방울 소리가 났다. 임금이 마침 귀비를 상념(傷念)하던 터라 그 소리를 취하여 우림령곡을 만들어 한을 나타냈다. 그때 이원 제자(梨園弟子)들 가운데 장야호(張野狐) 한 사람만이 필물(髣髴)을 다루었으므로 이 곡을 불게 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47) 명황잡록(明皇雜錄) : 당나라 정치희(鄭處誨)가 지은 것으로 당 현종의 일대기와 숙종의 국난극복 사실을 기록하였다. 내용이 자못 풍부하고 문자가 생동감 있다. 현종은 초기에 정치에 힘썼지만, 만년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음악과 여색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하였다. 《通鑿》, 《新唐書》
- 48) 서촉(西蜀) : 서쪽의 촉나라는 촉한(蜀漢)으로 중국 삼국시대 유비(劉備)가 세운 나라이며 지금의 사천(四川)과 중경시(重慶市) 일대이다. 현종과 양귀비가 안록산의 난을 피해 서촉지역으로 몽진(蒙塵)하였다.
- 49) 사곡(斜谷)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진령(秦嶺)의 미현(眉縣)에 있는 산곡(山谷)의 이름이다. 골짜기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남쪽 어귀를 ‘포구(褒口)’라고 하고, 북쪽 어귀를 ‘사구(斜口)’라고 하며 포사곡(褒斜谷)이라고도 부른다. 양쪽으로 험준한 산줄기가 이어져 예로부터 병가(兵家)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던 요충지였음.
- 50) 잔도(棧道) : 촉중(蜀中)으로 가는 길은 산이 험준하여 중국 사천 지방에 있는 험준한 절벽에 나무로 시렁을 만들어 길을 낸 곳이다.
- 51) 빗방울 소리 : 현종이 촉(蜀)으로 피난할 때, 열흘 내내 장마가 들어 잔도에서 방울 소리를 들으며 양귀비를 슬피 생각하여 우림령곡을 지은 것이다. 백거이가 말한 방울(鈴)이란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울을 빗방울로 생각하기도 한다.
- 52) 이원(梨園) : 배우들의 기교를 닦는 곳이고 제자란 곧 연극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당현종 때 장안의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에서 제자 3백 명을 뽑아 속악(俗樂)을 가르쳤던 데서 연유된 것이다.

중에 오직 장야호(張野狐) 한사람만이 피리를 잘 불었기에 이로 인하여 곡조를 불었더니 마침내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내가 역사서와 여러 전문가의 학설을 고찰해보니 명황제는 진창(陳倉)에서부터 산관(散關)<sup>53</sup>에 들어갔고, 하지(河池)<sup>54</sup>에서 나와 처음부터 사곡의 길을 경유하지 않았다. 오늘날 검주(劍州) 재동현(梓桐縣)<sup>55</sup> 지명은 상정(上亭)으로 옛날과 오늘날에 지은 시에는 명황제가 방울소리를 들은 곳이라고 새겨져 있으니 거의 이곳이 맞을 것이다.

나은(羅隱)<sup>56</sup>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랑비기 찾아들자 상정에서 하루 목는데  
 빗속에 장맛비 방울소리 들려 감상에 젖네  
 귀한 천자께서 오히려 혼이 끊어지려는데  
 궁해서 연잎 옷<sup>57</sup> 입으니 눈물이 하염없네  
 검수<sup>58</sup>는 지류 많은데 어디로 흐르고 있나  
 파촉 원숭이<sup>59</sup>는 근거 없어 들을 수 없네

細雨霏微宿上亭  
 雨中因感雨淋鈴  
 貴為天子猶魂斷  
 窮著荷衣好涕零  
 劍水多端何處去  
 巴猿無賴不堪聽

53) 진창(陳倉)에서부터 산관(散關)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보계시(寶雞市)로 웅(雍)·양(梁)의 요충(要衝)으로 한·위(漢魏) 이래로 공수(攻守)의 요지가 되었음. 산관 역시 장안에서 서측 지역으로 가는 경유지이다.

54) 하지(河池) : 지금의 감숙성 농남(隴南) 휘현(徽縣)으로 무도군(武都郡)에 속한다.

55) 재동현(梓桐縣) : 지금의 재동현(梓潼縣)으로 사천성 면양시(綿陽市) 동북쪽에 속한다.

56) 나은(羅隱) : 생졸년은 833~909이다. 당말 오대의 시인으로 본명은 횡(橫)이다. 모두 십여 차 과거에 실패하자, 은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시명이 천하에 진동하였으며 특히 영사(詠史)에 뛰어났으나, 비판과 풍자의 색채가 짙어 종신토록 급제하지 못하였다. 난리를 피해 향리로 내려갔다가 절도사 전류(錢鏐)에게 발탁되어 종사관으로 몸을 의탁하였다. 《舊五代史 卷24 羅隱列傳》

57) 연잎 옷 : 《초사(楚辭)》〈구가(九歌)〉 소사명(少司命)편에 “연잎 옷에 혜초 띠 매고 갑자기 왔다가 홀연히 떠나네.(荷衣兮蕙帶, 儵而來, 忽而逝.)”라고 하였는데, 연잎 옷과 혜초로 만든 띠는 신선이나 은자의 복장을 가리킨다.

58) 검수(劍水) : 검수관(劍水館) 곁에 흐르는 고대의 물 이름이다. 지금 험니새(葉尼塞) 황하 유역으로 고대에 계골부락(契骨部落)의 터전이었다. 《周書·異域突厥傳》

59) 파촉 원숭이 : 원문의 ‘파원(巴猿)’은 파촉의 원숭이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때

젊어서 고생하였는데 오늘도 떠도는 신세<sup>60)</sup>  
반딧불 모은 선생<sup>61)</sup>에게 공연히 부끄럽구나

少年辛苦今飄蕩  
空媿先生教聚螢

세상에 전해지기로는 명황제가 상정에서 목고 있는데, 빗속에서 소의 위낭소리가 들리자 서글픈 마음이 들어 일어나서 황번작(黃幡綽)<sup>62)</sup>에게, “방울소리로 무슨 말을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묻자, “폐하는 특랑당(特郎當)이라 부릅니다.”라고 하였다. ‘특랑당’이란 세속에서 정리하지 않음을 일컫는다. 명황제가 한바탕 웃고는 마침내 이 곡을 지었다.

《양비외전》에 또 기록하기로, 상황제(上皇帝)가 또 장안으로 돌아온 뒤에 다시 화청지<sup>63)</sup>로 행행하였는데 따르는 후궁과 비빈이 대부분 예전 사람이 아니었다. 망경루(望京樓)<sup>64)</sup> 아래에서 장야호에게 명하여 <우림령> 곡에 연주하게 하였다. 황제가 사방을 돌아보고는 처량해지니 본래 황제의 마음에 양귀비를 잊지 못하는 것이라 다만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어떤 사람이 좌측에서 원숭이 새끼를 잡았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끝까지 따라오며 슬피 울부짖었다. 새끼가 죽자 어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世說新語 黜免 第28》

- 60) 젊어서 ..... 신세 : 당 현종의 신세를 말하고 있다. 현종은 중종의 아들로 황실에서 태어났지만 측천무후의 압박 속에 고생하며 지내다가 중종과 예종이 복위하면서 황태자가 되었다. 젊어서 고생하다가 황제가 되어 태평천국을 이루었지만 다시금 안록산의 난으로 서쪽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표탕(飄蕩)은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갈대나 수초를 의미한다.
- 61) 반딧불 모은 선생 : 동진(東晉) 때 차윤(車胤)이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었으므로, 주머니 속에 반딧불을 많이 잡아넣어서 그 반딧불로 책을 비추어 공부했던 데서 온 말로, 열심히 공부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 62) 황번작(黃幡綽) : 당나라 현종 때의 배우로, 개원(開元) 초에 궁중에 들어와 30년간 현종을 모셨다. 성격이 익살스럽고 대답을 잘하여 시정(時政)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있었으며, 안록산의 난 때에는 반군에 조력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난이 평정된 뒤에 구금되기도 하였으나 현종이 불쌍히 여겨 풀어 주었다고 한다. 《開天傳信記》
- 63) 화청지 : 장안 근처 여산(驪山)에 위치한 양귀비가 목욕하던 온천을 말한다.
- 64) 망경루(望京樓) : 망경루라는 누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안성 교외에 도성이 바라다 보이는 누대를 지칭한다. 여기서는 시어에 나오는 조원각을 의미한다.

나무 깎고 줄 묶어 늙은 인형 만드니	刻木牽絲作老翁
주름 투성이 하얀 머리는 진짜 같구려	雞皮鶴髮與真同
잠시 가지고 놀다 그만두면 심심하니	須與弄罷寂無事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같구나	還似人生一世中

두목(杜牧)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풍잎 떨어져 텅구는 서리 앉은 숲속에	零葉翻紅萬樹霜
옥 꿰어놓은 연꽃 만발하니 온천 향긋해	玉連開蕊暖泉香
흐르는 구름은 조원각 <sup>65)</sup> 에 내려오지 않아	行雲不下朝元閣
우림령 한 곡조에 눈물만 줄줄 떨어다오	一曲淋鈴淚數行

장호(張祜)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맛비에 방울소리 나던 밤 진령에 돌아가니 <sup>66)</sup>	雨淋鈴夜卻歸秦
어쩐지 장휘가 새로운 곡 지은 것 같구려	猶是張徽一曲新
상황제가 눈물 섞어 연주하라고 장황하게 말하니	長說上皇和淚教
달빛 밝은 남내 <sup>67)</sup> 에 더욱 이는 사람 없다오	月明南內更無人

65) 조원각(朝元閣) : 당나라 때 여산(驪山)의 화청궁(華清宮) 안에 있던 누각 이름이다. 현종이 특히 이곳을 자주 찾았는데, 뒤에 현종은 이 조원각에 도가의 현원황제(玄元皇帝)가 강림했다 하여 강성각(降聖閣)으로 이름을 바꿨다.

66) 진령에 돌아가니 : 오늘날의 섬서(陝西), 감숙(甘肅)의 진령(秦嶺) 이북으로, 춘추 시대에 진(秦)나라에 속했던 곳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지역은 중국의 서북쪽 변방으로 외적이 주로 쳐들어오는 곳이었다. 두보(杜甫)의 시 모귀(暮歸)에 진천이 토번(吐蕃)의 군사에게 점령된 상황을 탄식하여 “남쪽으로 계수를 건너려니 배가 없고 북쪽으로 진천에 돌아가려니 전쟁터의 북소리 많아라.(南渡桂水闕舟楫, 北歸秦川多鼓鞞)”라고 하였다.

67) 남내(南內) : 본래 당나라 흥경궁(興慶宮)을 지칭한 말이다. 당시 장안을 삼내(三內)로 구분하여, 서쪽에 있는 황성을 서내(西內)라 하고 대명궁(大明宮)을 동내(東內)라 하고 흥경궁을 남내라고 불렀다. 안사(安史)의 난 이후 태자였던 숙종이 즉위하고 현종(玄宗)은 태상황이 되어 실권을 잃은 채 흥경궁에 머물렀는데 양궁 간의 알력으로 현종의 지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장휘(張徽)<sup>68</sup>가 바로 장야호이다. 누구는 장호의 시는 상황제가 서촉 지방을 나올 때 지은 곡조라고 언급하던데, 《명황잡록》과 《양비외전》의 내용과 다르다. 장호의 뜻은 명황제가 서촉 지방에 들어갈 때 이 곡을 지었다는 것이고 ‘장맛비에 방울소리 나던 밤 진령에 돌아가니(雨淋鈴夜卻歸秦)’라는 시귀는 장야호가 예전부터 지었던 신곡처럼 느껴졌다는 것으로 다른 가설이 아니다.

원진은 <비과가(琵琶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눈물 흘뿌리자 붉은 현은 젖어들고	淚垂掉撥朱弦濕
샘물 얼어 오열하고 피꼬리는 잠잠	冰泉鳴咽流鶯澀
이 감정 때문에 우림령을 연주하니	因茲彈作雨淋鈴
비바람 쓸쓸해서 귀신도 우는구나	風雨蕭條鬼神泣

오늘날 쌍조(雙調)인 <우림령만>은 자못 애처로우니 참으로 본래 곡조의 남은 소리일 것이다.

[5.55] 清平樂

《清平樂》, 《松窗錄》云:「開元中, 禁中初重木芍藥, 得四本, 紅、紫、淺紅、通白繁開。上乘照夜白, 太真妃以步輦從。李龜年手捧檀板, 押眾樂前, 將欲歌之。上曰:『焉用舊詞為。』命龜年宣翰林學士李白立進《清平調》詞三章。白承詔賦詞, 龜年以進, 上命梨園弟子約格調, 撫絲竹, 促龜年歌, 太真妃笑領歌意甚厚。」張君房《脞說》指此為《清平樂》曲。按明皇宣白進清平調詞, 乃是令白于清平調中製詞。蓋古樂取聲律高下合為三, 曰清調、平調、側調, 此之謂三調。明皇止令就擇上兩調, 偶不樂側調故也。

68) 장휘(張徽) : 원세조 중통 2년(1216)에 태어났으며 관직은 섬서 행중서서좌우 사낭중에 이르렀다. 당시 남송 서예의 대가이다. 전서, 예서체가 가장 유명했으며 금나라의 유처사(劉處士)를 위해 묘갈명을 써줬는데 현재 시안(西安)의 비림(碑林)에 남아있어 국가급의 진귀한 문물이 되었다. 장휘의 시 또한 유명하여 특별한 굴기(崛奇)라고 칭송한 말이 남아있다.

況白詞七字絕句，與今曲不類。而《尊前集》亦載此三絕句，止目曰《清平詞》。然唐人不少考，妄指此三絕句耳。此曲在越調，唐至今盛行。今世又有黃鍾宮、黃鍾商兩音者。歐陽炯稱，白有應製《清平樂》四首，往往是也。

### [5.55] 청평악

〈청평악(淸平樂)〉<sup>69)</sup>은 〈송창록(松窗錄)〉<sup>70)</sup>에서 언급하였다. “개원(開元)<sup>71)</sup> 연간에 궁중 사람이 처음으로 목작약(木芍藥)<sup>72)</sup>을 좋아하였는데, 4그루의 꽃이 피어나니 붉은색, 자주색, 담홍색, 순백색이 화려하게 피었다. 황제가 달빛이 받아 하얗게 비추자 양귀비가 걸어서 어가를 따라갔다. 이귀년(李龜年)<sup>73)</sup>은 손으로 단판(檀板)<sup>74)</sup>을 들고 여러 악공들 앞에 압반(押班)<sup>75)</sup>하

69) 청평악(淸平樂) : 원래 당나라 교방곡의 이름으로 뒤에 사패의 이름이 되었다. 청평악령(淸平樂令), 취동풍(醉東風), 억라월(憶蘿月), 청평조(淸平調)의 이칭이 있다. 송나라 시사는 항상 사패를 사용한다. 이 곡조의 정체는 쌍조(雙調) 8구 46자로 전편에 4측운, 후편에 3평운으로 구성한다. 안수(晏殊), 안기도(晏幾道), 황정견(黃庭堅), 신기질(辛棄疾) 등이 이 곡조를 고루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안기도가 가장 많다. 동시대에 곡패(曲牌) 이름이기도 하며 남곡우조(南曲羽調)에 속한다.

70) 송창록(松窗錄) : 당나라 이준(李浚)이 지은 잡사(雜史)로 1권이다. 기재된 것은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건이며 현종 시대가 가장 많고 자못 역사책을 많이 참조하여 보충하였다. 예를 들어 현종과 양귀비가 침향정에서 모란을 감상하던 일이 모두 자세하게 기재하여 불만한 것이 많다.

71) 개원(開元) : 당(唐)나라 현종의 첫 번째 연호로 713~741년에 해당된다.

72) 목작약(木芍藥) : 목단(牡丹)의 어원에 대해 《본초강목(本艸綱目)》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참고로 제시한다. 목단은 색이 붉은 것을 상품으로 삼는다. 이미 씨를 맺은 시기에도 뿌리에서 싹이 난다고 하여 ‘목단(牡丹)’이라 한다. 당나라 사람은 목단을 목작약(木芍藥)이라 불렀다. 그 꽃이 마치 작약 같으면서 그 목은 가지는 마치 나무 같기 때문이다.

73) 이귀년(李龜年) : 당 현종 때의 음악가로 음률(音律)에 능통하였다.

74) 단판(檀板) : 박자 맞추는 박달나무 판자로 민간 타악기의 한 가지 견고한 나무 세쪽을 묶어 박자를 치면서 노래하였다.

75) 압반(押班) : 백관(百官)이 조회(朝會)할 때 반열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대(唐代)에는 감찰어사(監察御史) 2인이 맡았고, 송대(宋代)에는 참지정사(參知政事)와 재상이 번갈아가며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악공들 앞에 서서 진

고 이제 막 노래하려 하였다. 황제가 ‘어째서 옛날 가사를 사용하는가?’라고 말하고 이귀년에게 명하여 한림학사 이백(李白)에게 어명으로<sup>76)</sup> 지어 바치게 한 <청평조(淸平調)><sup>77)</sup> 3수를 연주하게 하였다. 이백은 조칙을 받들어 사를 읊었고 이귀년은 악보를 만들어 올렸다. 황제가 이원(梨園)의 제자에게 명하여 격조를 조율하고 악기를 다루게 하여 이귀년이 노래하도록 재촉하게 하자, 양귀비가 웃으며 술을 받아들고<sup>78)</sup> 노래를 부르니 그 술을 권하는 뜻이 매우 깊었다.”

장군방(張君房)<sup>79)</sup>의 《좌설(脞說)》에서는 이 노래를 <청평악>곡이라 지칭하였다. 명황제가 이백에게 어명을 내려 <청평조>사를 바치게 한 것을 살펴보건대 바로 이백으로 하여금 <청평조> 중에 가사를 짓게 한 것이다. 대개 고대의 음악은 성률(聲律)의 높낮이를 가지고 조합하여 세 가지를 만드니 청조(淸調), 평조(平調), 측조(側調)라고 하니 이것을 삼조(三調)라 말한다. 명황제는 다만 위 두 곡조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니, 우연히 측조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백의 사는 칠언절구는 오늘날 곡조와 비슷하지 않다. 그러나 《존전집(尊前集)》<sup>80)</sup> 또한 이 세 절구를 게

열을 정비하고 통제하는 지휘자 역할을 말한다.

- 76) 어명으로 : 원문 “宣”은 임금의 신하에게 성지(聖旨)를 내리거나 하교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 77) 청평조(淸平調) : 이백이 지은 악부곡사이다. 당 현종이 모란이 활짝 핀 달 밝은 밤에 침향정(沈香亭)으로 양귀비를 불러 술 시중을 듣게 하고 꽃을 완상하면서, 악부신조(樂府新調)를 짓게 하려고 한림 공봉(翰林供奉) 이백을 불렀던 바, 이백은 이때 술이 잔뜩 취해 있던 터라, 신하들을 시켜 찬물로 이백의 얼굴을 씻겨 술이 조금 깨게 한 다음 지필을 내리자, 이백이 즉시 <청평조> 3장(章)을 지었다. 《楊太眞外傳上》
- 78) 술을 받아들고 :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에는 “태진비가 파리칠보배(玻璃七寶杯)에 서량주(西涼州)의 포도주를 받아들고 웃음으로 권하는 뜻이 매우 후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 79) 장군방(張君房) : 송(宋)나라 안륙(安陸) 출신으로, 김현진 교리 등의 벼슬을 지냈다. 황제가 비각(秘閣)의 도교 서적을 교정하게 했을 때 참여하여 4,565권을 엮어 올렸고, 그중 중요한 부분 1만 여 조항을 뽑아 《운급칠첩(雲級七籤)》 122권을 만들었다. 《좌설(脞說)》은 중국어 사전의 한 종류로 자잘하면서 비속적인 단어나 의론을 해석한 것이다. 《四庫全書提要 卷146》

재하고 다만 <청평사(淸平詞)>라고만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당나라 사람은 깊이 고찰하지 않고 경솔하게도 이 세 절구를 지목하였을 따름이다. 이 곡은 월조(越調)에 속하며 당나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지금 세상에 또 황중궁(黃鍾宮)과 황중상(黃鍾商) 두 음조가 있다. 구양경(歐陽炯)<sup>81)</sup>은 이백이 황제의 명령에 응하여 지은 <청평악> 4수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따금 맞는 말이기도 하다.

#### [5.56원]春光好

《春光好》, 《羯鼓錄》云:「明皇尤愛羯鼓玉笛, 云八音之領袖。時春雨始晴, 景色明麗, 帝曰:『對此豈可不與他判斷!』命取羯鼓, 臨軒縱擊, 曲名《春光好》。回顧柳杏, 皆已微坼。上曰:『此一事不喚我作天工, 可乎?』」今夾鍾宮《春光好》, 唐以來多有此曲。或曰:夾鍾宮屬二月之律, 明皇依月用律, 故能判斷如神。予曰:二月柳杏坼久矣, 此必正月用二月律催之也。《春光好》, 近世或易名《愁倚闌》。

#### [5.56역]춘광호

<춘광호(春光好)><sup>82)</sup>는 <갈고록(羯鼓錄)><sup>83)</sup>에서 언급하였다. “명황제는

80) 존전집(尊前集): 당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가곡을 모은 것으로서 2권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모진(毛晉)의 발문(跋文)에는 명나라 사람 고오방(顧梧芳)의 저서로 되어 있다.

81) 구양형(歐陽炯): 후촉 맹창(孟昶) 때 사람이다. 한림학사(翰林學士) 구양형의 성정이 소탈하여 거침이 없었다. 평소 장적(長笛)을 불기 좋아하였는데, 태조(太祖)가 간혹 그를 편견으로 불러 악곡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82) 춘광호(春光好): 당나라 교방(敎坊)의 곡명으로 뒤에는 사조로 쓰였다. 당 현종(唐玄宗)은 본디 음률을 잘 아는 데다 갈고를 특히 좋아했던바, 현종이 지은 92종의 갈고 가곡 중에 하나이다. 태주궁(太簇宮)에 속하며 지금은 현종이 지은 원곡은 전해지지 않는다. 정체(正體)는 쌍조(雙調) 40자이고 앞단락은 5구 3평운(平韻)이고 뒷단락은 4구 2평운이다.

83) 갈고록(羯鼓錄): 당나라 때 남탁(南卓)이 쓴 작품으로 음악 전문 사료(史料)이다. 1권 분량으로 당나라에 전래된 갈고를 현종이 잘 쳤기에 특별히 저술하였

갈고(羯鼓)<sup>84</sup>과 옥피리를 특히 좋아하셨는데, 팔음(八音)<sup>85</sup> 중에 으뜸<sup>86</sup>이라고 하였다. 당시에 봄비가 막 개이고 경치가 맑고 수려하니 황제가, ‘이것을 마주대하고 있자니 어찌 다른 것과 우열을 판가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 하고는 갈고를 가져다 처마에 매달아 마음대로 두들기도록 명을 내리고 곡명을 <춘광호>라고 하였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를 돌아보니 모두 살짝 피어있었다. 황제가, ‘이 한 가지 일로 나를 조화옹(造化翁)이라 부르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였다.

지금 협종궁(夾鍾宮)인 <춘광호>는 당나라 이래로 이러한 곡이 많이 있다. 누군가 말하였다. “협종궁은 2월의 성률<sup>87</sup>에 속하고, 명황제는 해당달에 따라 성률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령처럼 판가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2월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꽃이 핀지 오래되었을 테니, 이것은 반드시 정월에 2월의 성률을 사용하여 개화를 재촉한 것이다. <춘광호>는 근세에 더러 <수의란(愁倚闌)><sup>88</sup>이라 곡명을 바꾸기도 한다.

다. 남탁은 생몰년은 미상이며 자는 소사(昭嗣)이다. 처음에 습유가 되었다가 직간하여 송자령(松滋令)으로 유배되었고 선종 대중 연간에 검남관찰사(黔南觀察使)를 지냈다.

- 84) 갈고(羯鼓) : 갈고는 서방의 갈(羯)이라는 부족이 치는 북으로 말가죽으로 메운 장고이다. 두 손에 채를 들고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장고(兩杖鼓)라고도 한다. 당 현종이 이것을 잘 쳤다.
- 85) 팔음(八音) : 옛날에는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 등 여덟 가지 재료를 써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재료에 따라서 소리를 각각 달리했으므로 8음이라 하였다.
- 86) 으뜸 : 원문 “領袖”는 옷깃과 소매를 가리키는데 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으뜸, 최고, 정상 등의 의미로 쓰인다.
- 87) 2월의 성률 : 팔십사성도(八十四聲圖)에 의하면 12월이 궁성이 되고 각각 7성(궁상각치우 5성과 변궁, 변상)이 있어서 모두 84성이 된다고 하였다. 84개의 성률은 각각 12달에 배속되는데 협종궁은 2월에 해당한다. 《식산집·율呂推步》
- 88) 수의란(愁倚闌) : 안기도(晏幾道)가 지은 4번째 변체로 정식 곡명은 《수의란령·화음월(愁倚闌令·花陰月)》이다. 쌍조(雙調)로 42자이다. 앞 단락은 5구 3평운이고 뒷단락은 4구 3평운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春猶淺，柳初芽，杏初花，楊柳杏花交影處，有人家，玉窗明暖烘霞，小屏上水遠山斜，昨夜酒多春睡重，莫驚他。”

## [5.57] 菩薩蠻

《菩薩蠻》，《南部新書》及《杜陽雜編》云：「大中初，女蠻國入貢，危髻金冠，纓絡被體，號菩薩蠻隊，遂製此曲。當時倡優李可及作菩薩蠻隊舞，文士亦往往聲其詞。」大中適宣宗紀號也。《北夢瑣言》云：「宣宗愛唱《菩薩蠻》詞，令狐相國假溫飛卿新撰密進之，戒以勿泄，而遽言於人，由是疎之。」溫詞十四首，載《花間集》，今曲是也。李可及所製蓋止此，則其舞隊，不過如近世傳踏之類耳。

## [5.57] 보살만

〈보살만(菩薩蠻)〉<sup>89)</sup>은 《남부신서(南部新書)》<sup>90)</sup>와 《두양잡편(杜陽雜編)》<sup>91)</sup>에서 언급하였다. “대중(大中)<sup>92)</sup> 연간 초기에 여만국(女蠻國)<sup>93)</sup>이 입조(入朝)해서 조공(朝貢)<sup>94)</sup>을 바쳤다. 높다랗게 상투를 틀고 금관(金冠)

89) 보살만(菩薩蠻) : 무산일편운(巫山一片雲)·자야가(子夜歌)·화간의(花間意)·화계벽(花溪碧)·성리중(城裏鐘)·중첩금(重疊金)·매화구(梅花句)·만운홍월(晚雲烘月)·보살만(菩薩蠻) 등 별칭이 많다. 쌍조 44자, 전·후단 각 4구 2측은 2평운으로 되어 있다. 이백의 소작이 아니고 후인의 가탁이라는 설도 있음. 그 전편은 다음과 같다. “平林漠漠煙如織，寒山一帶傷心碧。曠色入高樓，有人樓上愁。玉階空佇立，宿鳥歸飛急。何處是歸程，長亭連短亭。”《李白詩集》

90) 남부신서(南部新書) : 북송 시대의 전역(錢易)이 지은 필기소설이다. 모두 10권 분량으로 800여 조항이 있다. 내용은 대부분 당나라 사건이고 오대시대가 소수를 차지한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사대부의 일상이 많다. 후에 사고전서에 편집되었다.

91) 두양잡편(杜陽雜編) : 당나라 소악(蘇鶚)이 지은 필기소설이다. 소악은 자가 덕상(德祥)이고 섬서성 무공(武功) 사람이며 생졸년은 미상이다. 두양잡편은 무공 두양천(杜陽川)에 살았기에 이름으로 삼았고 모두 3권 분량이다. 대부분 당나라 대종(代宗)부터 의종(懿宗)까지 10대 조정에 있다는 해외의 진귀한 보물과 허무맹랑한 서사가 대부분이다.

92) 대중(大中) 연간 : 당 선종(唐宣宗)의 연호로 847년에서 860년까지이다.

93) 여만국(女蠻國) : 전설 상에 당나라 시기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이다. 사패 보살만의 유래가 되는데, 여만국이 당나라에 조공을 왔는데 쌍룡서(雙龍犀)와 명하금(明霞錦)을 바쳤다. 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높게 틀고 금관을 썼으며 갓끈으로 온 몸을 감싸서 보살같은 남만인(菩薩蠻)이라고 불렀다.

94) 조공(朝貢) : 천자국에 대해 주변 소국은 제후와 같은 신분으로 봉토를 받는

을 썼으며 갓끈으로 몸을 뒤덮어서 ‘보살 남만인 부대’라고 불렀는데 마침 내 이 곡을 지었다. 당시에 노래하는 광대 이가급(李可及)<sup>95</sup>이 <보살만대무(菩薩蠻隊舞)>를 지었는데, 문인들 또한 이따금 그 가사를 읊조렸다.” 대중은 바로 당 선종(唐宣宗)의 연호이다.

《북몽쇄언(北夢瑣言)》<sup>96</sup>에 언급하였다. “선종은 <보살만>사를 애창하였는데, 영호도(令狐綯)<sup>97</sup>는 온정균(溫庭筠)<sup>98</sup>이 새로 지었다고 속이고 남 몰래 진상하면서 온정균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으나 대번에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선종이 멀리하였다.” 온정균의 사 14수는 《화간집(花間集)》<sup>99</sup>에 실려 있는데 지금 곡이 이것이다. 이가급이 지었던 것은 대개 여기에 그쳤으니 그 <보살만대무>는 마치 근세에 들고 도는 부류에 불과할 따름이다.

체제를 유지하였다. 소국의 왕은 정기적으로 천자국에 사신을 보내어 조회에 참석하고 지역특산품을 바치는데 이것을 조공이라 한다.

- 95) 이가급(李可及) : 당나라 의종(懿宗) 시기에 궁중의 영관(伶官)으로 참군희(參軍戲)의 으뜸이고 음률에 정통하였다. 목소리가 좋아 새로운 성악을 잘 불러서 민간에 인기가 많았다. 대표 무도곡으로 《탄백년대무(數百年隊舞)》, 《보살만대무(菩薩蠻隊舞)》 등이 있다.
- 96) 북몽쇄언(北夢瑣言) : 손광현(孫光憲, 901~968)이 지은 문집이다. 손광현은 자는 맹문(孟文), 호는 보광자(葆光子)이며 사천성 능주(陵州) 사람이다. 송나라가 건국되자 황주자사(黃州刺史)가 되었다. 《송사(宋史)》와 《십국춘추(十國春秋)》에 열전이 전한다. 경전을 좋아하여 수천권을 수집하고 사본을 베끼고 교감하기를 즐겼다. 저서로는 《북몽쇄언》, 《형태집(荊台集)》, 《굴재집(橘齋集)》이 있으나, 《북몽쇄언》만 전한다. 사과는 84수가 있다.
- 97) 영호도(令狐綯) : 당나라 문종(文宗)·무종(武宗)·선종(宣宗)·의종(懿宗) 때 사람으로 자는 자직(子直)이다. 벼슬은 이부상서(吏部尚書)·우복야(右僕射)를 지내고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이르렀다. 《唐書 卷166 令狐楚列傳 令狐綯》, 《舊唐書 卷172 令狐楚列傳 令狐綯》
- 98) 온정균(溫庭筠) : 비경(飛卿)은 온정균의 자인데, 문장에 능하여 무릇 시를 지을 적에는 기초(起草)도 하지 않고 여덟 번 차수(叉手)를 하는 동안에 8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온팔차(溫八叉)’라고 불렀다고 한다.
- 99) 화간집(花間集) : 오대 시대 사(詞)의 선집(選集)이다. 후촉(後蜀) 사람 조숭조(趙崇祚)가 엮었고 18인의 작품 500수를 모은 것으로 모두 10권 분량이다.

## [5.58] 望江南

《望江南》，《樂府雜錄》云：李衛公為亡妓謝秋娘撰《望江南》，亦名《夢江南》。白樂天作《憶江南》三首，第一「江南好」，第二、第三「江南憶」。自注云：「此曲亦名《謝秋娘》，每首五句。」予考此曲，自唐至今皆南呂宮，字句亦同。止是今曲兩段，蓋近世曲子無單遍者。然衛公為謝秋娘作此曲，已出兩名。樂天又名以《憶江南》，又名以《謝秋娘》，近世又取樂天首句名以《江南好》。予嘗嘆世間有改易錯亂誤人者，是也。

## [5.58] 망강남

〈망강남(望江南)<sup>100</sup>〉은 《악부잡록(樂府雜錄)》<sup>101</sup>에서 언급하였다. “이 위공(李衛公)<sup>102</sup>이 운명을 달리한 기녀 사추랑(謝秋娘)<sup>103</sup>을 위해 〈망강

100) 망강남(望江南) : 사패명이다. 수양제(隋煬帝)가 서원(西苑)을 만들고, 연못을 파서 거기에 용봉가(龍鳳岡)를 띄우고서 망강남곡(望江南曲)을 지었다고 한다. 한강 남쪽 시골의 경치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로 당나라 백거이(白居易)가 이를 본떠 〈억강남(憶江南)〉이라는 사(詞)를 지어 읊은 뒤 ‘억강남’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 사는 억강남의 사패 형식에서 글자 수는 맞추었으나 운자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진(眞)자 운목에 속하는 신(新)·인(人)을 운자로 사용하여 짝을 맞추었으나 운(雲)자는 운목이 문(文)에 속하므로 운자를 맞추지 않은 것이다. 《宋詞大辭典》

101) 악부잡록(樂府雜錄) : 당나라 단안절(段安節)이 지은 비파 음악 자료이다. 《비파록(琵琶錄)》의 별칭이다. 비파 연주법 삼재(三才)를 사계절에 빗대어 상징하였다. 〈풍속통(風俗通)〉에 “비파는 근대의 악공이 만들었는데 연원은 알지 못한다. 길이가 3척 5촌이고 천지인 삼재와 오행을 본받았고 4개의 줄은 사계절을 형상하였다.”라고 하였다.

102) 이위공(李衛公) : 당나라 경종(敬宗)·무종(武宗) 때 재상을 지내고 상서좌복야 태자소보 위국공(尚書左僕射太子少保衛國公)에 추증된 이덕유(李德裕)를 가리킨다. 평천장(平泉莊)은 그의 별장으로 둘레가 40리인데, 그 안에 100여 개의 정자와 누대, 천하의 기화이초(奇花異草), 진귀한 소나무, 괴석이 있어 그 경치가 완연히 선경과 같았다고 한다. 자손의 심한 사치로 폐망하고 말았다. 《劇談錄 李德裕》

103) 사추랑(謝秋娘) : 당나라의 기녀로 금릉(金陵 지금의 난징) 사람으로 본래 성은 두씨(杜氏)이다. 이기(李錡)라는 사람의 첩으로 있다가 이기가 역모로 주살되자 입궁하여 궁녀가 되었고 헌종에게 총애를 받았다. 목종이 등극하자 황자의 보모가 되었고 황자가 폐위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생을 마쳤다. 후에

남)을 지었는데 또한 <몽강남(夢江南)>이라 이름한다. 백居易(白居易)가 <억강남(億江南)> 3수를 지었는데, 첫째 수는 <강남호(江南好)>이고, 둘째와 셋째 수는 <강남억(江南憶)>이다. 자주(自註)에, “이 곡조 또한 <사추량>이라고 이름하며, 매 수마다 5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곡조를 살펴보니, 당나라부터 지금까지 모두 남려궁(南呂宮)이고 자구 또한 동일하다. 단지 지금 곡조는 두 단락인데, 대개 근세의 곡자(曲子)는 단편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이위공이 사추량을 위해 그 곡조를 지어서 이미 두 개의 곡명이 나왔다. 백居易도 <억강남>이나 또 <사추량>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근세에는 또 백居易의 첫 시구를 따서 <강남호>라고 이름 지었다. 나는 일찍이 세간에서 뒤바꾸고 착각하여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을 탄식해왔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다.

[5.59원] 文淑子

《文淑子》, 《盧氏雜說》云:「文宗善吹小管, 僧文淑為入內大德, 得罪流之。弟子收拾院中籍入家具, 猶作師講聲。上採其聲製曲, 曰《文淑子》。」予考《資治通鑑》: 敬宗寶曆二年六月己卯幸興福寺, 觀沙門文淑俗講。敬、文相繼, 年紀極近, 豈有二文淑哉? 至所謂俗講, 則不可曉。意此僧以俗談侮聖言, 誘聚羣小, 至使人主臨觀, 為一笑之樂, 死尚晚也。今黃鍾宮、大石調、林鍾商、歇指調皆有十拍令, 未知孰是? 而淑字或誤作序并緒。

[5.59역] 문서자

<문서자(文淑子)><sup>104</sup>는 《노씨잡설(盧氏雜說)》<sup>105</sup>에 언급하였다. “당

에 들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부녀자를 비유하곤 하였다.

104) 문서자(文淑子) : 악곡 이름이다. 당나라의 속강(俗講)하는 승려 문서는 불경을 잘 암송하였고 변문(變文)을 강창(講唱)하니 음성이 나긋나긋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따라서 성조를 본받아 악곡을 지었기 때문에 승려 이름으로 곡명을 삼았다. 문서는 문서(文叙)나 문숙(文淑)이라고 하는 본도 있다.

105) 노씨잡설(盧氏雜說) : 당나라 노언(盧言)이 지은 야사집이다. 노언에 대해 당

문종(文宗)은 작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승려 문서(文澈)가 대내(大內)<sup>106)</sup>에 들어가 대덕(大德)<sup>107)</sup>이 되어 죄를 지어 유배되었다. 제자들이 사원 안에 적몰(籍沒)된 가구를 수습하다보니 스승이 강경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황제가 그 소리를 채록하여 곡을 짓고는 <문서자>라고 이름하였다.”

내가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고찰해보니, “경종(敬宗) 보력(寶曆) 2년<sup>108)</sup> 6월 기묘(己卯)일에 흥복사(興福寺)<sup>109)</sup>에 행행하여 승려 문서가 속강(俗講)<sup>110)</sup>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는데 경종과 문종이 제위를 계승한 햇수가 매우 가까운데, 어찌 두 명의 문서가 있겠는가! 이른바<sup>111)</sup> 속강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이 승려는 속담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욱되게 해서 소인배들을 피어 모아두었는데 군주가 왕립하여 보도록 하였으니 웃고 넘어갈 즐거움이었더라도 처형당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이 느슨할 정도이다. 오늘날의 황종궁(黃鐘宮), 대석조(大石調), 임종상(林鐘商), 혈지조(歇指調)는 모두 열 개의 박령(拍令)이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서(澈)자는 더러 서(序)자나 서(緒)자로 잘못 쓰이기도 한다.

나라 때 활동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생물년과 사적은 전혀 연구된 것이 없다.

106) 대내(大內) : 큰 곳 안쪽이라는 뜻으로 가장 큰 곳은 황궁을 의미한다.

107) 대덕(大德) : 종교 용어로 불교와 도교 등의 종교에서 연장자인 승려나 도사에 대해 쓰는 경칭이다. 예를 들어 고승대덕(高僧大德)이나 고도대덕(高道大德)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108) 경종(敬宗) 보력(寶曆) 2년 : 보력은 당 경종(唐敬宗)의 연호로, 2년은 서기 826년이다.

109) 흥복사(興福寺) : 강소성 상숙시(常熟市) 우산(虞山) 북쪽 기슭에 자리한 사찰이다. 한족지구 불교전국 중점사찰로 지정되어 문화재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남제(南齊) 때는 대비사(大悲寺)라 하였다가 양나라 대동(大同) 5년(539)에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복수사(福壽寺)로 고쳤다.

110) 속강(俗講) : 당대(唐代)의 사원(寺院)에서 불경의 뜻을 해설할 때 쓰던 설창(說唱)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이야기하듯 설법하는 것을 말하나 자세하지는 않다.

111) 박령(拍令) : 박자의 빠르기로 곡조의 빠르기를 박자로 차등을 둔 것이다.

[5.60] 鹽角兒

《鹽角兒》，《嘉祐雜志》云：「梅聖俞說，始教坊家人市鹽，於紙角中得一曲譜，翻之，遂以名。」今雙調《鹽角兒令》是也。歐陽永叔嘗製詞。

[5.60] 鹽角兒

〈鹽角兒(鹽角兒)〉<sup>112)</sup>는 《가우잡지(嘉祐雜志)》<sup>113)</sup>에 언급하였다. “매요신(梅堯臣)<sup>114)</sup>이 설명하기로 처음에 교방(教坊)<sup>115)</sup>의 집안 사람이 소금을 사왔는데 종이 꼬트머리에서 어느 곡보(曲譜)를 찾아내 번안(翻案)하였고 마침내 곡명으로 삼았다.” 오늘날은 쌍조(雙調)인 〈염각아령(鹽角兒令)〉이 이것이다. 구양수(歐陽脩)가 일찍이 가사를 지은 적이 있다.

[5.61] 喝駝子

《喝駝子》，《洞微志》云：「屯田員外郎馮敢，景德三年為開封府丞檢滂戶田，宿史胡店。日落，忽見三婦人過店前，入西畔古佛堂。敢料其鬼也，攜僕王侃詣之。延坐飲酒，稱二十六舅母者，請王侃歌送酒，三女側聽。十四

112) 염각아(鹽角兒) : 사패 이름으로 구양수와 조보지(晁補之)가 지은 시가 있다. 두 편을 소개한다. “增之太长, 減之太短. 出群风格, 施朱太赤, 施粉太白, 傾城顏色. 慧多多, 嬌的的. 天付與, 教誰憐惜. 除非我, 假著抱著, 更有何人消得.”, “開時似雪, 謝時似雪. 花中奇絕, 香非在蕊, 香非在萼, 骨中香徹. 占溪風, 留溪月, 堪羞損山桃如血, 直饒更, 疏疏淡淡, 終有一般情別.”

113) 가우잡지(嘉祐雜志) : 송나라 강휴복(江休復)이 지은 1권의 기사이다. 당시의 일사(逸事)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잡설도 수록하였다. 《강인기잡지(江隣幾雜志)》, 《인기잡지(隣幾雜志)》라고도 한다.

114) 매요신(梅堯臣) : 1002~1060. 송나라 때의 시인으로, 자는 성유(聖俞)이고, 호는 완릉(宛陵)이다. 구양수(歐陽脩)의 추천으로 중앙의 관리인 국자감 직강(國子監直講)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순흠(蘇舜欽)·구양수 등과 같이 성당(盛唐)의 시를 본으로 하여 당시 유행하던 서곤체(西崑體)의 섬교(纖巧)한 폐풍을 일소하고, 새로운 송시(宋詩)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시집으로 《완릉집(宛陵集)》 60권이 있고, 《손자(孫子)》 13편의 주(註)와 《당재기(唐載記)》 26권의 저작도 있었다.

115) 교방(教坊) : 당 현종(玄宗) 때 여인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던 곳이다. 이곳에서 현종이 음악을 만들면 제자들이 익혀서 연주를 하였다.

姨者曰：『何名也?』侃對曰：『《喝馱子》。』十四姨曰：『非也。此曲單州營妓教頭葛大姊所撰新聲。梁祖作四鎮時，駐兵魚臺，值十月二十一日生日，大姊獻之。梁祖令李振填詞，付後騎唱之，以押馬隊，因謂之《葛大姊》。及戰，得勝回，始流傳河北，軍中競唱。俗以押馬隊，故訛曰《喝馱子》。莊皇入洛，亦愛此曲，謂左右曰：『此亦古曲，葛氏但更五七聲耳。』李珣《瓊瑤集》有《鳳臺》一曲，注云：「俗謂之《喝馱子》。」不載何宮調。今世道調宮有慢，句讀與古不類耳。

#### [5.61] 갈태자

〈갈태자(喝馱子)〉는 《통미지(洞微志)》<sup>116)</sup>에서 언급하였다. “둔전원의랑(屯田員外郎)<sup>117)</sup> 풍감(馮敢)이 경덕(景德) 3년<sup>118)</sup>에 개봉부 승(開封府丞)<sup>119)</sup>이 되어 홍수가 난 호전(戶田)을 점검하러 사호점(史胡店)에 묵었다. 날이 저물자, 부인 3명이 사호점 앞을 지나서 서쪽 논두렁에 있는 낡은 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뜻 보았다. 풍감은 귀신이라고 여기고, 하인 왕간(王侃)과 함께 불당으로 갔다. 자리를 마련하여 술을 마시자, 스물여섯째 외숙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왕간에게 술을 권하는 노래를 칭하니 부인 3명이 귀 기울여 들었다. 열네번째 이모라는 사람이 ‘제목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 왕간이 ‘〈갈태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16) 통미지(洞微志) : 전희백(錢希白)이 《설부(說郛)》 39권에 수록된 백과사전의 일종이다. 주로 용어의 미묘한 의미를 통찰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117) 둔전원의랑(屯田員外郎) : 후한 말 조조(曹操)가 조지(棗祗)의 건의를 받아들여 설치한 전농중랑장(典農中郎將)에서 발단하였다. 처음에는 허창성(許昌城)에서 백성을 모아 둔전을 일궈고 진(晉)나라에서는 상서성(尚書省)에서 둔전조(屯田曹)를 설치하였다. 당나라에서 상서성 공부(工部)에서 중5품 둔전낭중, 중6품 둔전원의랑 1인을 두었다. 직무는 천하의 둔전의 정령(政令)을 맡았는데 중앙관직은 실직이 아니었고 지방 수령이 군사와 둔전을 경영하였다.

118) 경덕(景德) 3년 : 경덕은 북송(北宋) 진종(眞宗)의 연호로, 1004~1007년이다. 경덕 3년은 1006년이다.

119) 개봉부 승(開封府丞) : 개봉부는 북송의 수도이다. 지방관아의 관리는 관청수령인 부윤(府尹)이 있고 행정을 책임지는 부승(府丞)이 있고 군사를 책임지는 위(尉)가 있다. 부승은 지금으로 보면 한성부 서윤(庶尹)에 해당한다.

열네번째 이모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이 곡은 단주(單州)<sup>120</sup>의 관기(官妓) 교두(教頭)<sup>121</sup>인 갈씨(葛氏) 큰 언니가 새로 지은 노래입니다. 후량(後梁) 태조<sup>122</sup>가 사진(四鎮)<sup>123</sup>을 구축할 때에 어대현(魚臺縣)<sup>124</sup>에 군사를 주둔하던 차에 10월 21일에 생일을 맞이하니 큰 언니가 노래를 바쳤습니다. 후량 태조는 이진(李振)<sup>125</sup>으로 하여금 전사(填詞)<sup>126</sup>하게 하고 후발대 기병에 부쳐 노래를 불러서 이것으로 기병대를 통제하였기에 이런 연유로 <갈대자(喝大姉)>라 불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하여 개선하자 비로소 하북(河北) 지역에서 유행하여 전해졌고, 군영 안에서 다투어 불렀습니다. 세속에는 기병대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갈대자>라고 와전되었습니다. 장종(莊宗)이 낙양에 입성하고서<sup>127</sup> 또한 이 곡을 좋아하여 주변 사

120) 단주(單州) : 산둥성 단현(單縣)지역으로 황하의 하류가 흐르는 지역인데, 이 일대를 흐르는 황하는 매우 탁하다. 선주(單州)라고도 읽는다.

121) 교두(教頭) : 교방 제자나 지방관아의 관기에게 음악과 춤을 가르치는 교수를 말한다.

122) 후량(後梁) 태조 : 당나라를 멸망시킨 후량의 태조 주전충(朱全忠, 852~912)을 말한다. 원래 황소(黃巢)의 적도 출신으로 당나라에 귀순하여 사진 절도사(四鎮節度使)에 이르고 양왕(梁王)에 봉해졌는데, 그 뒤 소종(昭宗)과 애제(哀帝)를 시해하고 국호를 양으로 바꿨으나, 만년에 누차 패하면서 세력이 위축되어 가다 마침내는 차자(次子)인 우규(友珪)에게 시해당했다. 《新五代史 卷1 梁本紀 太祖上》

123) 사진(四鎮) : 사망을 진압하는 네 개의 큰 산으로, 양주(揚州)의 회계산(會稽山), 청주(靑州)의 기산(沂山), 유주(幽州)의 의무려산(醫無閭山), 기주(冀州)의 괘산(霍山)을 말한다.

124) 어대현(魚臺縣) : 산둥성 제녕시(濟寧市)의 관할 현으로 산둥성 서남부에 남사호(南四湖) 서쪽에 위치한다.

125) 이진(李振) :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양나라를 세운 주전충(朱全忠)의 책사이다. 진사시에 여러 번 낙방하여 조정의 선비를 매우 싫어하였다. 주전충이 조관(朝官) 30여 명을 백마역에서 한꺼번에 몰살시킨 백마지화(白馬之禍)를 일으키도록 부추긴 인물이다.

126) 전사(填詞) : 가곡을 작곡한 다음에 가사를 지어 곡에 채워 넣는다는 의미로 지금 작사(作詞)와 같다.

127) 장종(莊宗)이 낙양에 입성하고서 : 장종은 후당(後唐)을 세운 이존욱(李存勗)을 말한다. 장종은 뛰어난 무력으로 연(燕)나라 유수광(劉守光)을 멸하고, 이어 후량을 쳐 멸망시킨 다음 국호를 당(唐)이라 칭하고 낙양(洛陽)에 도읍하

람에서 「이 노래 또한 옛날 노래인데 같씨가 다만 다섯에서 일곱 대목만 바꿨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순(李珣)<sup>128</sup>의 《경요집(瓊瑤集)》에 〈봉대(鳳臺)〉<sup>129</sup> 한 곡이 있는데 주석에는 “세속에서 〈갈태자〉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어느 궁조에 속하는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에서는 도조궁(道調宮)에 느릿한 곡조가 있는데, 구두(句讀)는 옛 노래와 비슷하지 않을 따름이다.

### [5.62원] 後庭花

《後庭花》, 《南史》云:「陳後主每引賓客, 對張貴妃等游宴, 使諸貴人及女學士與狎客共賦新詩相贈答。采其尤艷麗者為曲調, 其曲有《玉樹後庭花》。」《通典》云:「《玉樹後庭花》、《堂堂》、《黃鸝留》、《金釵兩臂垂》, 並陳後主造。恒與宮女學士及朝臣相唱和為詩, 太樂令何胥採其尤艷麗者為此曲。」予因知後主詩, 胥以配聲律, 遂取一句為曲名。故前輩詩云:「玉樹歌翻王氣終, 景陽鐘動曉樓空。」又云:「後庭花一曲, 幽怨不堪聽。」又云:「萬戶千門成野草, 只緣一曲後庭花。」又云:「綵牋曾繫欺江總, 綺閣塵銷玉樹空。」又云:「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又云:「玉樹歌闌海雲黑, 花庭忽作青蕪國。」又云:「後庭餘唱落船窗。」又云:「後庭新聲嘆樵

였으며, 이어 전촉(前蜀)도 병합하고 허북(河北)의 땅을 평정하여 오대 중에서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장중은 당시에 유행하던 악극(樂劇)을 좋아하여 배우나 환관을 우대하여 이들을 정치에 개입시켰다가 배우에게 시해당하여 나라가 멸망하였다.

128) 이순(李珣): 855~930. 만당시기의 사인으로 자는 덕윤(德潤)이고 사천성 재주(梓州) 사람이다. 후촉에 출사한 뒤로 다른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저서로는 《경요집(瓊瑤集)》이 있지만, 산실하고 지금은 《당오대사(唐五代詞)》에 54수가 전하는데 대부분 비분강개하는 소리이다.

129) 봉대(鳳臺): 악부(樂府) 곡사(曲辭)의 하나인데, 진 목공(秦穆公)의 딸 농옥(弄玉)이 당시에 통소를 잘 불던 소사(簫史)라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므로, 마침내 그에게로 시집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농옥도 통소를 배워 봉황(鳳凰)의 울음소리를 잘 냄으로써 봉황이 그의 집에 모여들자, 마침내 봉대를 짓고 부부(夫婦)가 그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부부가 함께 봉황을 따라 신선(神仙)이 되어 갔다는 내용을 노래한 것이다.

牧。」又云：「不知即入宮前井，猶自聽吹玉樹花。」吳蜀雞冠花有一種小者，高不過五六寸，或紅，或淺紅，或白，或淺白，世目曰後庭花。又按《國史纂異》，雲陽縣多漢離宮故地，有樹似槐而葉細，土人謂之玉樹。揚雄《甘泉賦》「玉樹青蔥」，左思以為假稱珍怪者，實非也，似之而已。予謂雲陽既有玉樹，即《甘泉賦》中，未必假稱。陳後主《玉樹後庭花》，或者疑是兩曲，謂詩家或稱玉樹，或稱後庭花，少有連稱者。偽蜀時，孫光憲、毛熙震、李珣有《後庭花》曲，皆賦後主故事，不著宮調，兩段各四句，似令也。今曲在，兩段各六句，亦令也。

[5.62역] 후정화

〈후정화(後庭花)〉<sup>130)</sup>는 《남사(南史)》에 언급하였다. “진후주(陳後主)<sup>131)</sup>는 매 번 손님을 이끌고 장귀비(張貴妃)<sup>132)</sup> 등과 마주앉아 연회를 즐기며 놀았다. 여러 귀인(貴人)<sup>133)</sup>과 여학사<sup>134)</sup>로 하여금 친근한 손님과 함께 새

130) 후정화(後庭花) :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라는 악곡을 말한다. 진 후주(陳後主)가 빈객을 맞아 귀비(貴妃) 등과 즐겁게 잔치할 때마다 귀인(貴人)과 여학사와 빈객들에게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게 하였다. 그중에 더욱 아름다운 시를 뽑아 가사로 삼고 노래를 지어 아름다운 궁녀 수백 명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였다. 옥수후정화는 그 악곡 중의 하나이다. 이후로 망국의 악곡 혹은 망국의 한을 읊은 악곡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陳書 卷7 後主張貴妃列傳》

131) 진후주(陳後主) :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 진 선제(陳宣帝)의 장자로 이름은 숙보(叔寶), 자는 원수(元秀), 시호는 양(煬). 주색에 황음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많은 누각을 짓고 비빈들과 잔치를 벌이며 시부를 일삼았다. 수(隋)의 군사가 쳐들어 오어도 기악과 시 짓기를 고치지 않다가 수의 장수 한금호(韓擒虎)에게 잡혀 장안에 바쳐졌다.

132) 장귀비(張貴妃) : 진 후주(陳後主)가 광소각(光昭閣) 앞에 결기(結綺)·임춘(臨春)·망선(望仙)의 세 누각을 세웠는데, 모두 침단향목(沈檀香木)으로 짓고 금은 보옥으로 장식하였으며, 기화요초(奇花瑤草)를 심어 사치를 다하였다. 후주는 임춘각에 거처하고 장귀비는 결기각에 거처하였으며, 공(龔)·공(孔) 두 귀빈은 망선각에 거처하면서 즐겼다. 또한 매양 빈객을 불러 잔치를 하면서 여러 귀인들로 하여금 시를 짓도록 하고는 그중에서 잘된 것을 뽑아 〈옥수후정화곡(玉樹後庭花曲)〉을 만들었는데, 이 곡은 뒤에 〈옥수곡〉과 〈후정곡〉으로 나뉘었다. 《南史 卷12 張貴妃傳》

로운 시를 부르고 서로 주고 화답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가려내어 곡조를 지었는데, 그러한 곡 중에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가 있었다.” 《통전(通典)》에 언급하였다.

“<옥수후정화>, <당당(堂堂)>, <황리류(黃鸝留)>, <금차양비수(金釵兩臂垂)>는 모두 진후주가 지었다. 항상 궁녀와 여학사 그리고 조정의 신하들이 서로 부르고 화답하며 시를 지었는데, 태악령(太樂令)<sup>135</sup>이 하서(何胥)가 특히 경쾌하고 아름다운 곡을 골라 이 곡을 만들었다.” 나는 이로 인해 진후주의 시는 하서가 성률을 배합해서 마침내 한 구절을 취해 곡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선배들의 시에 “옥수가를 번안하니 왕의 기운이 끝나고. 경양종<sup>136</sup> 울리니 새벽 누각 비었네.(玉樹歌翻王氣終 景陽鐘動曉樓空)”라고 하였다. 또 “후정화 한 곡에, 깊은 원망 차마 들을 수 없네.(後庭花一曲 幽怨不堪聽)”<sup>137</sup>라고 하였다. 또 “천만 가호에 들풀이 뒤덮으니, 다만 <후정

133) 귀인(貴人) : 왕궁(王宮)에 딸린 내명부(內命婦)의 관작(官爵)으로, 품계는 종1 품이며 후궁(後宮) 중에서 빈(嬪)에 버금하는 자에게 이 관작을 내린다.

134) 여학사 : 남조(南朝) 진(陳)의 후주(後主)가 궁중에 두고 즐겼던 여관(女官)들을 말한다. 진 후주는 이름이 숙보(叔寶)로, 정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서 오로지 성색(聲色)에만 골몰하다가 수(隋)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그가 원대사(袁大捨) 등 문학에 재능이 있는 궁녀들을 뽑아 여학사라고 이름을 붙인 뒤에, 빈객을 이끌어 들여 귀비(貴妃) 등과 잔치를 벌일 때마다 여학사들로 하여금 시를 노래하면서 서로 수작하게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陳書 卷7 皇后傳 張貴妃》

135) 태악령(太樂令) : 궁중에서 악공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이다. 악령은 진나라 사람 악광(樂廣, ?~304)이 상서령(尚書令)의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악령이라 하는데서 시작되었고 태악령은 여러 악령 중에서 가장 직책이 높다.

136) 경양종(景陽鐘) : 종 이름으로, 제(齊)나라 무제(武帝)가 이 종을 만들어 경양루(景陽樓)에 걸어놓고 시간에 맞추어 이 종을 치면 궁녀들이 일찍 잠에서 깨어 단장을 하곤 했다는 고사이다. 《南齊書 后妃傳》

137) 후정화 ..... 없네 : 유우석의 <금릉회고(金陵懷古)>에 나온다. “야성의 물가엔 조수 가득하고, 정로정엔 햇살 비졌네. 채주엔 풀빛 새롭고, 막부엔 예처덜 푸른 연기 이네. 흥폐는 인사로 말미암는데, 산천은 덧없이 옛 모습 그대로 구나. <후정화> 한 곡조, 애절하여 들을 수 없네.(潮滿冶城渚, 日斜征虜亭. 蔡洲新草綠, 幕府舊煙青. 興廢由人事, 山川空地形. 後庭花一曲, 幽怨不堪聽.)”

화)한 곡만 이어지네!(萬戶千門成野草 只緣一曲後庭花)”라고 하였다. 또 “비단 시지<sup>138</sup>)를 접어서 강총<sup>139</sup>)을 속이고, 비단 누각에 먼지 사라지니 옥수는 공허하네.(綵牋曾襲欺江總 綺閣塵銷玉樹空)”라고 하였다. 또 “노래하는 소녀는 망국의 통한을 모르고, 강 건너편에서 아직도 후정화를 부르는구나.(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sup>140</sup>)라고 하였다. 또 “옥수가 끝나니 바다 구름은 어둡고, 꽃 핀 정원은 돌연 우거진 나라가 되었네.(玉樹歌闌海雲黑, 花庭忽作青燕國)”라고 하였다. 또 “후정화 여운이 선창에 떨어지네.(後庭餘唱落船窗)”라고 하였다. 또 “후정화 새로운 노래 소리에 나무꾼과 목동이 탄식하네.(後庭新聲嘆樵牧)”라고 하였다. 또 “궁궐 앞 우물 에 바로 들어가는 줄 몰라도, 오히려 스스로 옥수가 노래는 저절로 들리네.(不知即入宮前井, 猶自聽吹玉樹花)”라고 하였다.

오촉계관화(吳蜀雞冠花)<sup>141</sup>)에는 키 작은 품종이 하나 있는데, 길이는 5, 6촌에 불과하고 더러 붉은색이거나 담홍색, 흰색, 옅은 흰색을 띠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이 후정화라고 지목한다. 또한 《국사찬이(國史纂異)》를 살펴보건대 운양현(雲陽縣)<sup>142</sup>)에는 한나라의 이궁(離宮)<sup>143</sup>)터가 많은데 어

《劉賓客文集 卷22 五言今體》

- 138) 강총(江總) : 남북조(南北朝) 때 고성(考城) 사람으로 자는 총지(總持). 문장에 능하였으며 특히 시를 잘하였다.
- 139) 비단 시지 : 원문 “채전(綵牋)”은 시를 쓰는 채색 비단을 말한다.
- 140) 노래하는 …… 부르는구나 :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에 나온다. “안개는 강물을 덮고 달빛은 모래톱을 덮었어라, 밤중에 술집 가까운 진회에 배를 대었는데, 노래하는 소녀는 망국의 통한을 알지 못하고, 강 저편에서 아직도 후정화를 부르는구나.(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 《杜樊川詩集 卷4》
- 141) 오촉계관화(吳蜀雞冠花) : 오촉은 중국 남부지역 강소성과 복건성 일대의 오나라 지역과 사천성과 운남성 일대의 촉나라 지역을 병칭한 것이며 계관화는 담벼슬처럼 생긴 맨드라미를 말한다.
- 142) 운양현(雲陽縣) : 감천은 운양현에 있는 궁전의 이름이다. 본래 진(秦)나라 궁전이었는데, 한무제가 충축해 놓고 이곳에서 제왕(諸王)들의 조회를 받고 외국의 빈객을 접대하였다. 운양성(雲陽城) : 옹주(雍州) 운양현 서쪽 80리에 위치하며, 진나라 수도인 함양의 북서쪽으로 이곳에 진시황이 지은 감천궁이 있다.

떤 나무는 회화나무처럼 잎이 가늘어서 지방 사람들은 옥수라고 불렀다. 양웅(揚雄)의 《감천부(甘泉賦)》<sup>144</sup>에는 “옥수가 푸르디 푸르네.(玉樹青蔥)”라고 하였는데 좌사(左思)<sup>145</sup>는 진귀하고 기이한 물건의 가치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비슷할 뿐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운양에는 이미 옥수가 있으니 바로 <감천부>내용은 반드시 가치한 것은 아니다.

진후주의 <옥수후정화>에 대해서 누구는 두 곡이라고 의심하면서 시인이 더러 <옥수(玉樹)>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 <후정화>라고 말하며 <옥수후정화>라고 연결하여 부르는 것도 조금 있다. 위촉(僞蜀)<sup>146</sup> 시기에 손광헌(孫光憲)<sup>147</sup>, 모희진(毛熙震)<sup>148</sup>, 이순(李珣) 등이 <후정화>곡이 있었는데 모두 진후주의 고사를 노래하였지만 궁조(宮調)로 짓지 않았고 두 단락은 각각 4구로 ‘령(令)’박자와 비슷하다. 지금 남아있는 곡조는 두 단락 각각 6구로 역시 ‘령’ 박자이다.

143) 이궁(離宮) : 임금이 거둥할 때에 머무는 별궁으로 행궁(行宮)이라고도 한다.

144) 양웅(揚雄)의 감천부(甘泉賦) : 양웅은 자가 자운(子雲)이다. 서한의 촉군(蜀郡) 성도(成都) 사람으로 사부에 능하였는데, 40여 세에 경사에 유학갔다가 성제(成帝)가 감천에 행행하여 태치(泰畤)에서 교사(郊祀)를 지낼 때에 따라가서 제사를 도왔다. 이때 전각의 이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풍자하는 뜻을 담은 <감천부>를 지어 올렸다. 이것 말고도 <하동부(河東賦)>, <우렵부(羽獵賦)>, <장양부(長楊賦)>를 더 지었는데 그중에서<감천부>가 가장 으뜸이다. <文選 卷7 郊祀>

145) 좌사(左思) : 중국 서진(西晉)의 문장가로, 자는 태충(太冲)이다. 10년 동안 구상하여 《삼도부(三都賦)》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가 당대의 문사 황보밀(皇甫謐)이 감탄하여 서문을 써 주자 너도나도 베끼는 바람에 낙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고 한다. <晉書 卷92 文苑列傳 左思>

146) 위촉(僞蜀) : 맹지상(孟知祥)이 세운 후촉(後蜀)을 가리킨다. 후촉은 오대(五代) 때 10국 중 하나로써 후당(後唐) 명종(明宗)이 맹지상을 촉왕(蜀王)에 봉해 주었는데, 맹지상의 아들 창(禛)에 이르러 송(宋)나라 군사에 패망하였다. <지평요람(治平要覽)> <후량(後梁)>

147) 손광헌(孫光憲) : 901~968. 당나라이 문인으로 문인 사대부의 언행과 정치 및 역사 사실을 기록하였다. 저서로 《북몽쇄언(北夢瑣言)》이 있다.

148) 모희진(毛熙震) : 947년 전후로 활동한 시인으로 생몰년은 미상으로 촉지방 사람이다. 후촉에서 비서감(秘書監)이 되었다. 화려한 사를 잘 지어서 지금 29수가 남아있어 《당오대사(唐五代詞)》에 수록되었다.

[5.63] 西河長命女

《西河長命女》，崔元範自越州幕府拜侍御史，李訥尚書餞于鑑湖，命盛小叢歌，坐客各賦詩送之。有云：「為公唱作西河調，日暮偏傷去住人。」《理道要訣》：「《長命女西河》，在林鍾羽，時號平調。」今俗呼高平調也。《脞說》云：「張紅紅者，大曆初，隨父歌勺食。過將軍韋青所居，青納為姬。自傳其藝，穎悟絕倫。有樂工取古《西河長命女》加減節奏，頗有新聲。未進間，先歌于青。青命紅紅潛聽，以小豆數合記其拍，給云：『女弟子久歌此，非新曲也。』隔屏奏之，一聲不失。樂工大驚，請與相見，嘆伏不已。兼云：『有一聲不穩，今已正矣。』尋達上聽，召入宜春院，寵澤隆異。宮中號記曲小娘子，尋為才人。」按此曲起開元以前，大曆間，樂工加減節奏，紅紅又正一聲而已。《花間集》和凝有《長命女》曲，偽蜀李珣《瓊瑤集》亦有之，句讀各異。然皆今曲子，不知孰為古製林鍾羽並大曆加減者。近世有《長命女令》，前七拍，後九拍，屬仙呂調，宮調、句讀並非舊曲。又別出大石調《西河》，慢聲犯正平，極奇古。蓋《西河長命女》本林鍾羽，而近世所分二曲，在仙呂、正平兩調，亦羽調也。

[5.63] 서하장명녀

〈서하장명녀(西河長命女)〉<sup>149)</sup>는 최원범(崔元範)<sup>150)</sup>이 월주 막부(越州幕府)<sup>151)</sup>에서 시어사(侍御史)에 제수되자 이눌(李訥) 상서가 감호(鑑湖)<sup>152)</sup>

149) 서하장명녀(西河長命女) : 사패 이름으로 원래 당나라 교방의 곡명이다. 가사 중에 “박명녀(薄命女)”라는 내용이 있어 별명이 붙었다. 풍연사(馮延巳)의 《장명녀·춘일연(長命女·春日宴)》를 정본으로 삼는다. 쌍조(雙調) 39자로 앞 단락 3구는 3측운이고 뒷 단락 4구는 3측운이다. 대표작품으로 화응(和凝)의 《박명녀·천욕효(薄命女·天欲嘸)》가 있다.

150) 최원범(崔元範) : 853년 전후로 활동한 당나라의 문장가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다. 이눌의 절동막부(浙東幕府)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감찰어사가 되어 조정에 나아갈 때 이눌이 시를 지어 진송하였는데 《이상서명기가전유작봉수(李尚書命妓歌餞有作奉酬)》를 지었다.

151) 월주 막부(越州幕府) : 월주는 절강성 소흥(紹興) 지역으로 옛 월나라 지역이다. 월주는 절강성 동북쪽에 자리해서 절동막부라 불렀다.

에서 전별하였는데, 성소총(盛小叢)<sup>153</sup>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좌객들이 각자 시를 읊어서 전송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을 위해 서하의 가락 노래하는데, 해 저물어 이별하는 사람들 유독 상심하네!(為公唱作西河調, 日暮偏傷去住人)”라고 읊었다. 《이도요결(理道要訣)》에서 “〈장명녀 서하〉는 임종우(林鍾羽)에 속하는데, 당시에 평조(平調)라고 불렀다.”라고 하였고, 지금은 세속에서 고평조(高平調)라고 부른다.

《좌설(脞說)》에서 말하였다. “장홍홍(張紅紅)이라는 사람이 대력(大曆)<sup>154</sup> 연간 초기에, 아버지를 따라 노래 불러서 밥을 구걸했다. 장군 위청(韋靑)<sup>155</sup>이 사는 곳을 지나가다가 위청이 희첩으로 거두었다. 노래하는 재주를 스스로 물려받아 영특하고 월등히 뛰어났다. 어느 악공이 옛날의 〈서하장명녀〉를 가지고 박자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해보니 자못 새로운 소리가 있어서 곡을 바치기 전에 먼저 위청에게 노래를 불렀다. 위청은 장홍홍으로 하여금 몰래 노래를 듣고서 작은 콩 몇 홉으로 그 박자를 기록하게 하였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여제자가 오랫동안 이 노래를 부른 것이고 새로 만든 곡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병풍으로 가리고 연주했는데, 한 대목도 실수하지 않았다. 악공은 크게 놀라서 장홍홍을 만나보자고 요청하였고 탄복해 마지않았다. 덧붙여 말하기를, ‘어딘가 맞지 않은 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하자 의춘원(宜春院)<sup>156</sup>으로 소명되어 입궁하였고 황제의 총애와 은택은 융숭

152) 감호(鑑湖) : 절강성 소흥시 서남쪽에 있는 절강성에서 유명한 호수이다. 속설에는 800리에 걸쳐 있다 하며 수면이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다 해서 이름 하였다.

153) 성소총(盛小叢) : 847~860. 당나라 대중(大中) 연간에 절강성 소흥에서 활동한 유명한 기녀이다. 이눌이 절동의 염찰사(廉察使)로 있었을 때 어느 날 밤 성루에 올라 애절한 노래를 듣고 최원범을 전송할 때 함께 자리하여 시를 지어 주었는데 성소총이 《돌궐삼대(突厥三台)》시를 썼다.

154) 대력(大曆) : 당 대종(唐代宗)의 연호로 766년에서 779년까지이다.

155) 위청(韋靑) : 당나라의 장군으로 유명한 가수이며 성악 교육가이다. 본래 문신이어서 노래를 잘 불러 현종의 총애를 받았다. 음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재주가 뛰어났다. 관직은 금오대장군(金吾大將軍)에 이르렀다.

하고 남달랐다. 궁중 안에서 가곡을 기억하는 아가씨라고 불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인(才人)<sup>157</sup>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이 곡조는 개원(開元)<sup>158</sup> 연간 이전에 시작되어 대력 연간에 악공이 박자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하였고 장홍홍이 또 한 대목을 바로잡았을 따름이다.

〈화간집(花間集)〉에는 화응(和凝)<sup>159</sup>의 〈장명녀(長命女)〉곡이 있는데, 위촉(僞蜀) 이순(李珣)의 《경요집(瓊瑤集)》에도 역시 있는데, 구두(句讀)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모두 지금의 곡자(曲子)로, 그 누가 옛날에 지었던 임종우로 만들고 아울러 대력 연간에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한 것은 알지 못한다. 근세에 《장명녀령》은 앞 단락은 7박자이고, 뒤 단락은 9박자인데, 선려궁(仙呂宮)에 속하지만, 궁조(宮調)와 구두는 모두 옛날 곡조가 아니다. 또 따로 대석조(大石調)인 〈서하만(西河慢)〉에서 나와서 소리가 평정조(平正調)를 어기니 몹시 기이하면서 고아하다. 아마도 〈서하장명녀〉는 본디 임종우에 속했지만, 근세에는 선려조와 정평조 두 곡으로 분화하였는데 또한 우조(羽調)에 속한다.

#### [5.64] 楊柳枝

《楊柳枝》, 《鑑戒錄》云:「柳枝歌, 亡隋之曲也。」前輩詩云:「萬里長江一旦開, 岸邊楊柳幾千栽。錦帆未落千戈起, 惆悵龍舟更不回。」又云:「樂

156) 의춘원(宜春院): 당나라 장안성 태극궁(太極宮) 안의 궁원이다. 현종이 금원(禁苑) 안에 있는 이원에서 제자 3백명을 뽑아 풍류를 가르치고, 궁녀(宮女) 수백 명을 의춘원(宜春院)에 두어 이원의 제자로 삼았다.

157) 재인(才人): 후궁의 관명으로, 한나라 이후 송나라 때까지 그 관명을 사용했다. 측천무후도 미모가 뛰어나 14세에 재인으로 입궁하기도 하였다.

158) 개원(開元): 713~741년으로, 당나라 현종(玄宗) 전반기의 연호이다.

159) 화응(和凝): 898~955. 오대시대의 문장가이자, 법학, 의학의 대가이다. 자는 성적(成績)이고 산둥성 휘주(鄆州)사람이다. 17세에 명경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중서사인(中書舍人), 공부시랑에 이르렀다. 후한(後漢)에 입조하여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지고 후주(後周) 때에는 시중이 되었다. 고금 역사서를 익혀서 형사소송을 판결하여 억울한 일을 해결하였다. 저서로는 《의옥집(疑獄集)》이 있다.

苑隋堤事已空，萬條猶舞舊春風。」皆指汴渠事。而張祜《折楊柳枝》兩絕句，其一云：「莫折宮前楊柳枝，玄宗曾向笛中吹。傷心日暮煙霞起，無限春愁生翠眉。」則知隋有此曲，傳至開元。《樂府雜錄》云：白傅作《楊柳枝》。予考樂天晚年與劉夢得唱和此曲詞，白云：「古歌舊曲君休聽，聽取新翻楊柳枝。」又作《楊柳枝二十韻》云：「樂童翻怨調，才子與妍詞。」注云：「洛下新聲也。」劉夢得亦云：「請君莫奏前朝曲，聽唱新翻楊柳枝。」蓋後來始變新聲。而所謂樂天作楊柳枝者，稱其別創詞也。今黃鍾商有《楊柳枝》曲，仍是七字四句詩，與劉白及五代諸子所製並同。但每句下各增三字一句，此乃唐時和聲，如《竹枝》、《漁父》，今皆有和聲也。舊詞多側字起頭，平字起頭者，十之一二。今詞盡皆側字起頭，第三句亦復側字起，聲度差穩耳。

[5.64] 양류지

〈양류지(楊柳枝)〉<sup>160</sup>는 《감계록(鑑戒錄)》<sup>161</sup>에 말하길 “〈양류지〉는 망한 수(隋)나라의 곡이다.” 라고 하였다. 앞서대 사람의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 리를 흐르는 장강이 하루아침에 열리면	萬里長江一旦開
언덕배기에 늘어선 버드나무는 수천 그루	岸邊楊柳幾千栽
비단 돛 내리지 않았는데 전쟁 시작하니	錦帆未落干戈起

160) 양류지(楊柳枝) : 악부 가운데 하나인 〈양류지(楊柳枝)〉의 별칭이다. 〈양류지〉는 본디 한(漢)나라 악부의 횡취곡사(橫吹曲辭) 가운데 하나인 〈절양류(折楊柳)〉를 가리키는데, 당나라 때에 이르러 〈양류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개원(開元) 연간에 이르러서 교방악(敎坊樂)으로 편입되었다. 망한 수(隋) 나라를 조문하는 곡(曲)이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단순히 버들에 의하여 정을 읊는 것으로 되었다.

161) 감계록(鑑戒錄) : 후촉의 하광원(何光遠)이 지은 역사 평론서이다. 하광원은 936년 진후로 활동하였고 자는 휘부(輝夫)이고 강소성 동해현(東海縣) 사람이다. 후촉에서 벼슬하여 진주군사판관(普州軍事判官)에 이르렀다. 《감계록》은 10권으로 당나라 이래로 군신간의 사적을 찬집한 것이다.

구슬피라 임금의 배<sup>162</sup>)는 되돌아오지 않네

惆悵龍舟更不回

또한 말하기를, “낙원이던 수나라 제방은 헛일이 되었는데, 옛 봄바람에 수 천 버들가지는 여전히 춤추네.(樂苑隋堤事已空, 萬條猶舞舊春風.)”라고 하였는데 모두 수나라 운하<sup>163</sup>)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장호(張枯)의 ‘〈절양류지(折楊柳枝)〉 두 절구 중 한 구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궁전 앞 버드나무 가지를 꺾지 마오

莫折宮前楊柳枝

현종황제가 일찍이 피리로 불었다오

玄宗曾向笛中吹

날 저물어 뿌연 노을 일어나 상심한데

傷心日暮煙霞起

푸른 눈썹<sup>164</sup>)에 봄 슬픔 끝없이 생기누나

無限春愁生翠眉

수나라 때 이 곡이 있었고 개원(開元) 연간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악부잡록(樂府雜錄)》에 말하길 “백부(白傅)<sup>165</sup>)가 〈양류지〉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기로는 백거이가 말년에 유우석(劉禹錫)<sup>166</sup>)과 함께 이 곡과 가사를 창화(唱和)하였는데, 백거이가 말하길 “옛 노래와

162) 임금의 배 : 원문 “용주(龍舟)”는 임금이 타는 큰 배를 말한다. 수양제가 강남(江南)을 순행할 적에 자신은 용주에 타고 소후(蕭后)는 작은 배인 봉모(鳳艚)에 태우고서, 돛과 닻줄을 모두 비단으로 만들게 하고는, 장창 2백여 리에 걸쳐 수백 척의 배로 자신을 뒤따르게 했던 고사가 전한다. 《隋書 卷24 食貨志》

163) 수나라 운하 : 원문 “변거(汴渠)”는 수대(隋代)부터 북송(北宋) 시대까지 중원과 남동쪽 연해 지역을 잇던 변수(汴水)를 관통하는 중요한 운하이다.

164) 푸른 눈썹 : 원문 “취미(翠眉)”는 검푸른 먹으로 눈썹을 그린 것으로 곱게 화장한 미인을 말한다.

165) 백부(白傅) : 백거이(白居易)를 말한다. 개성초(開成初)에 태자소부(太子少傅)를 지냈기 때문에 백부라 칭한다.

166) 유우석(劉禹錫) : 생졸년은 772~842이다. 당나라 중산(中山) 사람으로 자는 몽득(夢得)이다. 벼슬은 감찰어사(監察御史)·태자빈객(太子賓客)을 역임하였고, 저서에는 《유빈객문집(劉賓客文集)》이 있다. 특히 시문에 뛰어나 그의 시에 대해 백거이(白居易)가 서(叙)하기를 시호(詩豪)라고 하였다.

곡조일랑 그대는 듣지 말고, 새로 편곡한 양류지를 들어보오.(古歌舊曲君休聽 聽取新翻楊柳枝)라고 하였다. 또한 <양류지이십운(楊柳枝二十韻)>을 지어 말하길 “악공 아이가 슬픈 곡조를 번안하니, 재인이 아름다운 가사를 붙였네.(樂童翻怨調 才子與妍詞)”라고 하였고, 주석에는 “낙양(洛陽)의 새로운 음악이다.”라고 하였다. 유우석이 또한 말하길 “그대여 모조록 옛 왕조의 곡을 연주하지 말고, 새롭게 번안한 양류지를 들어보오.(請君莫奏前朝曲 聽唱新翻楊柳枝)”라고 하였다. 아마도 훗날에서야 새로운 음악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백거이가 <양류지>를 지었다는 것은 별도의 가사를 창작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황종상(黃鐘商)인 <양류지>곡이 있는데 여전히 7언절구 시로, 유우석·백거이와 오대 시대의 작가들이 지은 것과 모두 동일하다. 다만 매 구마다 하단에 각각 3자 1구를 늘렸는데 이것이 바로 당나라 시기의 화성(和聲)으로 예컨대 <죽지사(竹枝詞)>, <어부(漁父)> 처럼 오늘날에는 모두 화성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옛 가사에는 측운(仄韻)으로 첫머리를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고, 평운(平韻)으로 첫머리를 시작한 것은 열에 한 두 개 정도였다. 지금의 사는 모두다 측운으로 첫머리를 시작하며, 제3구 역시 다시 측운으로 시작하여 성조가 조금 부드럽다.

#### [5.65] 麥秀兩岐

《麥秀兩岐》，《文酒清話》云：「唐封舜卿性輕佻。德宗時使湖南，道經金州，守張樂燕之。執盃索《麥秀兩岐》曲，樂工不能。封謂樂工曰：『汝山民亦合聞大朝音律。』守為杖樂工。復行酒，封又索此曲。樂工前乞侍郎舉一遍。封為唱徹，眾已盡記，於是終席動此曲。封既行，守密寫曲譜，言封燕席事，郵筒中送與潭州牧。封至潭，牧亦張樂燕之。倡優作襤褸數婦人，抱男女筐篋，歌《麥秀兩岐》之曲，叙其拾麥勤苦之由。封面如死灰，歸過金州，不復言矣。」今世所傳《麥秀兩岐》，今在黃鍾宮。唐《尊前集》載和凝一曲，與今曲不類。

[5.65] 맥수양기

〈맥수양기(麥秀兩岐)〉<sup>167)</sup>는 《문주청화(文酒淸話)》에 언급하였다. “당나라의 봉순경(封舜卿)<sup>168)</sup>은 성정이 경박스러웠다. 덕종(德宗) 때에 호남(湖南) 지역에 목민관으로 파견되어 부임하는 도중에 금주(金州)<sup>169)</sup>를 지나가는데 태수가 음악 연회를 열었다. 술잔을 잡고 〈맥수양기〉곡을 신청했는데, 악공이 연주를 할 수 없었다. 봉순경이 악공에게 말하기를, ‘너희 시골사람들 역시 응당 큰 조정의 음률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하니 태수가 악공을 곤장을 쳤다. 다시 술잔이 오가자, 봉순경이 또 이 노래를 신청하였다. 악공이 앞으로 나와서 봉 시랑(封侍郎)<sup>170)</sup>께서 한번 노래해주기를 간청하였다. 봉순경이 끝까지 노래를 부르니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미 모두 기억하였다. 이에 연회가 끝날 때까지 이 곡을 연주하였다.

봉순경이 길을 떠나버리자, 태수는 몰래 곡보를 베껴두고 ‘봉순경이 연회에서 한 일’이라 말하고 우편<sup>171)</sup>에 넣어 담주(潭州)<sup>172)</sup> 목사에게 보냈다. 봉순경이 담주에 도착하자, 담주 목사 또한 음악 연회를 열었다. 광대가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 서너 명으로 변장하여 남녀가 광주리<sup>173)</sup>를 안

167) 맥수양기(麥秀兩岐) : 사괘 이름으로 보리 이삭이 두 가닥이 졌다는 의미이다. 쌍조 64자이고 앞뒤 단락이 각각 7구 6측운으로 되어있다. 화옹의 《맥수양기·양점포반죽(麥秀兩岐·涼簾鋪斑竹)》이 대표작이고, 유언(俞彦)의 《맥수양기·무자다참덕(麥秀兩岐·撫字多慚德)》도 있다.

168) 봉순경(封舜卿) : 자는 찬성(贊聖)이고 발해현(渤海縣) 사람이다. 개평(開平) 3년(909)에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유주(幽州)로 부임하였고 정치웅(鄭致雍)과 함께 한림학사가 되었다. 글재주가 형편없었는데 항상 정치웅이 대필해줘서 태자소부가 되었다.

169) 금주(金州) : 지금의 협서 안강현(安康縣)에 속하고 이곳은 한나라에서 촉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170) 봉시랑(封侍郎) : 봉순경이 후량 시기에 관직이 예부시랑(禮部侍郎)에 올랐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171) 우편 : 원문 “우통(郵筒)”은 편지나 소식을 전할 때 지역마다 역참을 두어 심부름꾼이 지역을 오가며 소식을 전하였다. 심부름꾼은 편지를 통에 넣어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우편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172) 담주(潭州) :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장사현(長沙縣) 일대이다.

173) 광주리 : 원문 “광거(筐筥)”는 대나무나 왕골로 만든 광주리이다. 광은 등근

고서 〈맥수양기〉 노래를 부르니 보리 이삭을 줍는 힘든 연유를 서술한 것이다. 봉순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금주에 들렀지만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지금 세상에 전해지는 〈맥수양기〉는 현재는 황종궁에 속한다. 당나라의 《존전집(尊前集)》에는 화응(和凝)의 한 곡이 실려 있는데, 지금의 노래와 같은 종류는 아니다.

### < 참고문헌 >

- 徐信義 撰, 《碧鷄漫志校箋》,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  
王灼 撰, 《碧鷄漫志》, 北京, 中華書局, 1991.  
岳珍 著, 《碧鷄漫志校正》, 成都, 巴蜀書社, 2000.  
江枰 疏証, 《碧鷄漫志疏証》,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2015.

### < Abstract >

《BiJiManZhi》 established a comparatively complete theoretics system concerning The origin and ontology of Ci poetry in view of philosophical cosmologist genesis and dualism. Wang Zhuo(王灼) put forward the following Ci Poetry of the Central Ideas. Wang Zhuo is literature, theorist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He achieved some success In the fields.

His 《BiJiManZhi》is the highest achievement. That is the earliest extant a ci theory monographs. This monograph related to Music and

---

원통 모양이고 거는 네모진 모양으로 광은 주로 여자가 옆으로 매달아 물건을 담았고 거는 남자가 등에 지고 무거운 물건을 실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i, the Ci origin, Ci criticism and so on. That is a high works of data value and academic value.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mathematical statistics, and logic analysis method. Study ci poetry criticism theory and analysis aesthetic standards. The first part wi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Wang Zhuo for CI, CI origin theology and part of speech features are discussed. The social background and scale master piece of Ci that had mainly probed the sources and evolution of poetry, ci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made the question of their clear to break through then stereotypes of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live up to Ci for Poetry and offered the theoretical proofs for remaining the song like literary traits of ci.

**Key Words** : 왕작(WangZhuo), 남송(Southern Song Dynasty), 벽계만지(《BiJiManZhi》), 사학비평(Criticism of CiLiterature), 사학유파(Schools of Ci Literature)

